

천지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천능의 하나님 아버지, 날로 패역해지는 이 시대에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주셔서 오세대를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15)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89호 2012년 6월 23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모든 세대 아우르는 교회공동체 건설

## CT, 버글러 교수의 미국교회 진단-기독교 미성년화 현상 대안 제시

십대들이 좋아하는 경배찬양, 예수와 사랑에 빠진 감정,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요"라고 찍힌 티셔츠와 청바지, 영적 빈곤을 찾아 여러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 신앙에 입각한 정치적 활동, 구도자를 찾기 위한 선교...

이 모든 것들은 70년 전, 청소년 전문 단체들이 젊은이들을 위해 다가가기 위해 시행했던 혁신적인 방법들로 현재는 바로 미국 교회공동체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세대들에게 통용되는 영적 훈련이나 지침에서 중요한 요소들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결국 미국 기독교는 장년들이 보여주는 성숙함이나 노련함이 결여된 "미성년화" (the juvenilization of American Christianity) 상태로, 충분하게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헝턴대학교에서 12년 동안 '유스 미니스트리'를 가르치고 있는 토마스

E. 버글러(Thomas E. Bergler) 교수는 지난 75년 동안 미국내 청소년 단체들의 사역과 프로그램이 미국 교회 전통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진단한다. 즉 흑인 교회, 복음주의, 주류교단 그리고 로만가톨릭 등이 YFC(Youth For Christ)나 Young Life들의 영향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버글러는 바로 '미성년화'는 영적 미성숙, 소비주의, 자기중심 신앙 그리고 "기분만 좋으면 만사형통"식의 신앙 유형을 만들어 미국 기독교가 진정한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그는 건설적인 해결책으로 미성년화를 세심하게 다듬어 성년기로 나아가는 법은 신학적 진단과 더불어 교회 현장에서 다세대 교회공동체 구현에 있다고 말했다(When Are We Going to Grow Up?: The Juvenilization of American Christianity).



미국교회는 지난 70년 동안 청년사역의 성년화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주원인이 됐다

극적인 세계관이 전반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른들처럼 인생을 심각하게 사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고 싶다", "우리는 우리시대

로 살고 싶다"는 정서가 유행하게 된 것이다. 주류교단은 제일 먼저 이러한 정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역에 착수했다. 감리교회는 젊은이들이 정치적

인 활동을 하기에는 적합하다고 추정해 전국적인 행사나 총회에 이들을 동원시켜 인종 분리나 진보적인 정치적 쟁점에 나서게 만들었다 (the Methodist Youth Dept.).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침례교회는 젊은이들에게 어른처럼 옷을 입고 행동하며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인종분리 정책을 비판하도록 종용했다.

그러나 주류교단, 흑인교회 그리고 가톨릭 진영의 서분 접근에 비해서, 백인 복음주의 진영은 '미성년화'를 과감하게 수용했다. 어른들의 정서를 혐오했던 당시 십대들을 이해해 예배나 교육을 십대들의 취향으로 과감하게 변용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요일 저녁 교회 강당이나 실내 체육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라디오 쇼나 당시 유행하는 밴드 스타일의 예배, 예배 도중 짤막하지만 힘 있는 간증의 도입, 그리고 간결하지만 열정적인 설교로 애국심과 경건을 동시에 강조하게 된 것이다.

(3면으로 계속)

## 영적 성장의 길라잡이 소그룹!

### 패스터스닷컴, 교인 영적성장에 중요한 이유 소개

1.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어울릴지를 배우는 교실  
소그룹은 이기심을 버리고 공감하는 사랑을 연습하는 실험실이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경험을 나누는 법을 배우게 된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고전 12:26). 지속적인 정규모임을 통해서만 불완전한 신자들이 진정한 교제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엢4:16, 롬12:4-5, 골2:19, 고전12:25).

진정한 교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3:16).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길 원하신다.

2. 영적 근육을 발달  
여러분이 만약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고 수동적인 방관자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절대 성숙할 수 없다. 영적 성장의 중요한 도구중의 하나는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규칙적으로 운동시키는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에게서 온 힘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엢4:16).

신약성경에는 50번이 넘게 "서로"라는 말이 나온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 권면하고 서로 문안하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 존귀히 여기며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복종하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다른 성숙한 일을 하라고 명령 받았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길 원하시면 이같이 해야 한다.

3.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  
만약 소그룹 모임에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13:35). 서로 다른 배경과 인종 그리고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12:27).

4.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소그룹을 하셨다. 오늘날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요 눈이며 심장이다.

(2면으로 계속)



처음부터 청소년 전문 사역단체들의 소위 "미성년화" 사역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다. 대공황이후 희망보다는 경쟁과 긴축이라는 긴장감이 지배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들 단체들은 청소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신앙이나 그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했다. 즉각적인 효과나 영향력을 주기보다는 오랜 기간이 지나서 청소년들이 미국 사회의 희망이자 개혁의 선봉이 되도록 새로운 생활의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1930-1950년대 미국 사회가 겪은 외부적 충격은 상당했다.

대공황, 제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냉전의 시작은 정치가들이나 목회자 그리고 부모들로 하여금 과연 미국이 생존할 수 있으며, 미국식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을 수 없었고 레닌이나 스탈린의 가르침을 너무 용이하게 젊은이들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아가고 있었다.

여기에 1940년대부터 동일한 음악과 브랜드 그리고 문화적 신념들을 공유하는 '십대'가 출현하게 됐다. 대공황과 전쟁의 상흔은 이들에게 성장을 본질적으로 혐오하는 이른바 사춘기에 머무르게 하는 성장 혐오증을 만들게 했다. 성년이 돼 사회로 나가기보다는 아이와 같은 상태로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소



리더(leader)는 리더(reader)다!

2면



세계 이슬람 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3면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 김기원 목사(장위제일교회)

7면

# 담임목사 청빙

Texas 주 Houston 한인타운 중심부에 위치한 새누리침례교회는 복음의 비전을 품고 건강한 공동체를 가꾸어 갈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 자 격

1.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보수신앙을 가지신 분
2. 남침례교단 소속 혹은 가입이 가능하신 분
3.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분(M. Div학위이상)
4. 목회 경력 5년이상 되시는 분
5. 이중 언어 구사에 불편함이 없는 분
6. 미국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참고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한 분에 대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3. 이력서에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성장과정, 목회동기, 가족관계, 신앙관, 등)
3. 학위증명서(학부 및 대학원)
4. 목사안수증명서
5. 최근 설교 CD혹은 DVD 2회
6. 최근 촬영한 본인 및 가족사진 각 1매
7. 본교회 목회 계획 및 비전에 대한 소견서
8. 추천서(2인)

### 제출기한

2012년 7월 27일(당일도착분에 한함)

## 새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주소: 9560 Long Point Rd, Houston, TX 77055 홈페이지: http://www.hnbc.org  
Tel) 713-722-0773, Fax) 713-722-8929 e-mail) hnbcoffice@gmail.com



▲ 본당



▲ Children 재플



▲ 체육관



▲ Youth 재플

본교회는 7 acres(304,920 sq ft)의 부지위에 54,000 sq ft에 달하는 4개의 건물(Sanctuary, Gym, Education, Office building)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시론

## 보수 진보를 넘어선 하나됨



원종훈 목사 (시카고 그레이스교회)

유사 이래 인류는 나와 너를 구분하는데 익숙하다. 소유의 개념을 따라 내것 내것을 구분하고, 관계의 원근을 따라 내편과 네편을 구분한다. 유사 동일한 사상에 따라 서로 다른 그룹을 형성하기도 하고, 학연이나 지연, 그리고 특정한 성향을 따라 복잡다단하게 엮이기도 한다. 그중 산업혁명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부단하게 오르내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아마도 보수와 진보의 구분일 것이다.

현존 상태에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전면 변화시켜야 한다는 개혁적 의지가 강한 측은 진보라 한다. 현재 상태로도 큰 문제는 없으며 필요하다면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측은 보수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당대의 사회적 흐름에 대한 자세에 따라 보수와 진보로 나뉘는 것이며, 당시 사회상황에 따라 어느 한 쪽은 옳고 어느 한 쪽은 그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 경제 구조 및 정책, 국제무역에 대한 이해, 정치제도, 정권의 집권 유무, 북한에 대한 이해 및 접근 자세, 언론의 논지 방향, 복지나 교육 정책, 인권문제 등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적용되면서 양자는 마치 상극 관계처럼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 문제는 아니다. 자기 정체성의 문제이다. 어느 나라에 보수가 바람직하다면, 어느 나라에서는 진보가 더 유익하기도 할 것이다. 동일 사회에서도 어느 시기에 보수가 기여했다면 어느 때에는 진보가 사회를 이끌기도 할 것이다. 동일인이라해도 정치나 경제에 대하여 진보인 사람이 교육과 가정에 대하여 보수일 수 있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을 정리 추구하는 입장이 있는데, 사회는 이것을 보수와 진보로 이름 짓기를 즐겨한다. 하지만 확실히 보수와 진보의 선을 긋고, 어느 한쪽을 숭배하거나 어느 한쪽을 경멸한다면 사회의 건강성 유지는 어렵다. 보수와 진보는 생각의 차이이지, 서로 필요치 않은 배타적 상태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마음 놓고 공격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사상적 근거는 더 더욱 아니다. 한 마디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표를 너와 나를 서로 격리시키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말이다.

교회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다. 사회 참여 자세와 정도에 따라 그렇게 구분하기도 하며, 신학의 학문성이나 성향에 따라 스스로 어느 쪽을 자처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교회사를 거슬러 올라가 어느 것이 보수이며 어느 것이 진보인지, 왜 그렇게 구분되어왔는지, 한국 사회나 한국교회에 대한 보수 교회와 진보 교회의 공과는 어떠한지 논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보수 혹은 진보, 어느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든 이것은 자기의 신앙적 정체성이고 혹은 목회적 성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향이 어떻게든 교회는 서로 등 돌리고 탄소리하기에는 너무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산 몸이라는 것이다. 자칫 한국적 상황에서 이해되는 보수나 진보를 경직되게 선 긋다가 한 몸의 살을 도려내는 무지함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은 중대한 압축과 함께 나왔고 하나님은 늘 나그네, 고아, 과부, 중, 이방사람들이 이스라엘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복음과 교회를 이해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 남자나 여자, 종과 자유인 등의 구분이 무너졌다고 선언하였다. 아직 사회에 남아 있는 현실적인 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서는 더 이상 구분이 아니라는 값진 선언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타내주어야 할 사회적 축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치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해묵은 보수 진보 논쟁에 불을 붙이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어떤 구분으로든지 그리스도인은 서로 나뉘면 안되고, 교회는 유기적 지체체식으로 총만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마침 금년이 한미 양국의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하고, 성공이라는 사회적 생태 분능의 경쟁심리가 목회적 다양성을 비집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같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때이다.

# 리더(leader)는 리더(reader)다!

## 리더십저널, 휴가철 리더십 확장위한 독서의 유익함 소개

리더(leader)는 리더(reader)다. 리더는 독서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창조적 길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새 길을 걸어가는 힘을 얻는다. 워런 버핏은 지혜를 구하는 한 독자의 요청에 "책을 읽고, 읽고, 또 읽으십시오"라고 조언했다. 빌 게이츠는 매년 일주일 이상 별장으로 내려가 독서와 사색을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습관이 있다. 리더가 혼자 앉아서 책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부주하게 사람과 만나고 사역하

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영적 리더에게 책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은 시공간을 초월해 창조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행위이다. 독서법의 대가인 애들러 모티머는 "결에 있는 교사와 결에 없는 교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옆에 교사가 있으면 혼자서 생각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지만 책은 스스로 분석하고 사고한 만큼 답을 얻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계속 배우고 깨달아가려면 책을 통해 잘 배울 수 있는 법을 익혀야 한다.

세상은 실력 있는 리더를 요구한다.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있어야 리더로서의 권위가 선다. 영적 리더에게도 실력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영적 리더는 실력에 앞서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랑 없는 리더는 잔혹한 독재자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레닌이나 히틀러도 대단한 독서광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바른 지도자가 되지 못했다. 물론 남보다 앞서기 위해 책을 많이 읽었다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리더의 권위를 가지려면 책을



사한다.

4. 독서하는 자가 세상을 이끈다. 각 분야의 리더들은 하나같이 독서광이었다. 발명왕 에디슨은 실험실에서만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다. "나의 피난처는 디트로이트 도서관이었다. 나는 맨 아래 첫째 칸부터 맨 위 마지막 칸까지 다 읽었다. 그것도 모자라서 문고판 백과사전을 다 읽었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는 "내가 살던 마을의 작은 공립도서관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오늘날까지 아무리 바빠도 매일 한 시간씩, 주말에는 두 세 시간씩 책을 읽는다"고 했다. 알려진 대로 오바마 미국대통령도 독서광이다. 그 바쁜 선거운동 유세기간 동안에도 신문과 책을 항상 가까이 했다.

전쟁 중에서도 빼놓지 않고 책을 읽었던 나폴레옹이나 기나긴 전도 여행 중에 말 위에서 끊임없이 책을 읽었던 존 웨슬리의 일화는 유명하다. "물론 책을 읽는다고 모두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리더는 책레임에 틀림없다"고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말했다.

5. 리더의 사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리더가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 그의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예

## 독서 동기, 지식/정보 얻는 목적 넘어 영적훈련에 뒤야 더 나은 삶·관점변화·영역확대·사역에 결정적 역할

읽는 동기가 중요하다.

리처드 포스터는 책을 읽고 학습하는 것을 하나의 영적 훈련으로 여겼다. 독서는 지식과 정보를 얻는 일 반적인 목적을 넘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이런 동기 없이 엄청난 양의 독서를 통해 얻는 지식과 정보는 경건의 자료로 활용되기보다 교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독서의 유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1면에서 계속)  
5. 영적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유혹 앞에서 안전한 사람은 없다. 적절한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히3:13).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라는 말

1.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한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우리는 누가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며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2. 관점의 변화를 가져다준다.

산 위에 올라가 세상을 보듯이 독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하고, 현재 내가 있는 위치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

3. 리더십을 발휘하는 영역을 넓혀준다.

많은 독서가 반드시 진정한 리더를 낳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책을 통해 쌓은 지식과 정보는 어떤 상황에서든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한다. 바울이 헬라 철학자들과 변론할 만큼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했던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그의 독서량이 많았음을 시

이브라함 링컨은 스톤 부인이 쓴 "톰 아저씨의 오동나무"이라는 책의 영향으로 노예제도에 대해 반대의 기치를 더욱 높였으며, 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정체성을 고민하던 청소년 시절에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을 고발하는 흑인 작가들의 작품에서 위안과 성찰을 얻었고, 마틴 루터 킹 목사 전기인 "파티링 더 워터스"(Parting the Waters)를 애독함으로써 그의 생각과 가치관을 잉태하게 했다.

이것은 "사역"이라고 부르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12:7).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폴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을 병행함)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3.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4.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교육)
3. 수시 입학이 가능

#### Midwest 정기 여름 특강

June 18(월) - 22(금)

#### 2012 학년도 학위 수여식

June 22(금) 오후 3:00

#### Midwest Summer Concert

June 22(금) 오후 7:00

#### International Seminar

June 22(금) 오전 9:00 - 오후 1:20

"Christianity Culture and the Future China"

#### 성경원어 연구원 여름 특강

특강과목: 히브리어 입문  
일정: June 18(월) - 22(금)  
강사: 오명환 교수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 세계 이슬람 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 1. "믿음과 약의 힘"

"캄보디아 라타나끼리"라는 산지마을에 한 사람이 영(귀신)의 저주로 병이 들어 죽게 됐다. 무당을 불러 치료를 해야 하는데 무당에게 지불해야 할 돈이 소 한 마리 값으로 무려 500불이 넘는다는(이 나라의 평균임금을 말하기 어렵지만 교사월급이 60불에서 130불이다). 이 돈은 엄청난 돈이다. 병든 사람은



소 팔러가는 장면

속물이라는 소수부족의 사람이다. 그런데 친척들이 예수를 믿어 무당을 부르지 않고 기도하고 약을 쓴 결과 병이 나았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같은 부족인들이 무려 80명이 무당 굿하는 것을 버리고 예수를 믿기로 했다. 예수 믿기로 한 주민들 말 "우리는 가난합니다. 귀신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토지신이나 물의 신에게 기도하기 위하여 물소나 닭이나 돼지를 바싹 돈주고 사야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프놈펜포스트)

## 2. 넥타이 원조 국가가 넥타이 판매금지?

이란을 가보면 넥타이 맨 신사들을 볼 수 없다. 이란 대통령 아흐메드마드도 항상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가 없다. 넥타이는 미제국주의의 상징이라는 것이다.

"17세기 프랑스가 넥타이를 받아들였을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후손들에게 이것이 전 세계 복장 코드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란은 예외다.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종교기관에서는 타락한 서양 문물의 상징인 넥타이 판매를 금지했다.

사실 그동안 무함마드 카타미 대통령 시절에는 큰 도시에서 어렵지 않게 넥타이를 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ISNA뉴스에 따르면 그동안 종교경찰의 지도로 많은 상점이 넥타이를 판매 금지를 당했지만 제대로 단속이 된 적이 없어 다시 상점들이 넥타이를 팔기 시작하자 수요가 계속 늘어났다. 사실 넥타이 판매는 금지되어 있지만 공무원들도 사적으로 착용하기도 하고 결혼식에서 신랑들도 넥타이를 맨다. 넥타이는 지하로 매매되고 있는데, 걸리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여 상점이 폐쇄되기도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란이 넥타이의 원조국가라는 것이다. 영국 사학자 노엘 말콤에 의하면 싸사나드 왕조 시절 이란에서 온 크로아시아 용병이 유럽에 넥타이를 보급했다는 것이다. 이란사람들은 여름에도 더운 이슬

람 복장을 해야 한다. 남녀를 불문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최근 이란 종교경찰들은 넥타이와 머리스타일을 더 엄하게 단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놈펜포스트)

## 3. 동남아로 확산되는 종교충돌: 심각한 미얀마 사태

지난 주 미얀마에서 일어난 불교도들과 무슬림 간 충돌을 이미 보도했다. 그런데 5일이 지난 지금(15일)은 사태가 더 심각하게 발전하고 있다. 외신들은 이제 막 민주주의를 시작하려는 미얀마에 이 충돌은 민주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처음이 아니다. 2002년도에는 수도 양곤에서 두 종교 간의 충돌이 있었다. 즉 중들이 모스크를 방문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다.

이 사건을 동남아에서 대단히 심각한 일로 보여진다. 태국 남부는 이미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 불교도나 공무원 대상 테러로 지난 4년 동안 1000명 이상 죽었거나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은 남부지역인 파타니 지역 근무를 기피해 대우를 더 해주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실정이며, 필리핀 민다나오는 오래된 이야기다. 그래서 금년 10월 하순 서울에서 "동남아 이슬람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다.

마태복음 24:7에 말세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했는데, 민족은 인종으로 번역할 수 있다. 종인구



충돌 직전의 군중들

4천7백만의 미얀마는 135개 부족으로 구성된 다인종국가다. 그러나 인구가 많은 친족, 카렌족, 산족 등은 미얀마 정부를 상대로 독립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자체 수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기도 한다.

특별히, 카렌족들은 95%가 침례교 신자들이다. 이들은 과격하게 독립운동을 하기 때문에 주인종인 버마사람들은 카렌족을 미워한 나머지 기독교까지 싫어한다. 카렌족 침례교인들에게는 해당신학이 강하다.

이번 불교도들과 충돌한 로힝야(Rohingya) 부족들은 약80만 명이 나 되지만 미얀마 정부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 이들은 본래 방글라데시인들이고 무슬림이어서 방글라데시로 배타고 갔는데, 어제도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들을 돌려보내고 말았다. 유엔인권단체들은 방글라데시 정부에 이들을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넣지만 소용이 없다.

폭력 충돌로 수백명의 집이 불탔고 이미 수십 명이 사망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는 상황이다. 방글라데시와 인접한 라킨주는 통행금지령이 선포됐다.

## 4. "비관용을 관용하는" 인도네시아 정부

지난 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역의 기독교에 대한 과격 무슬림들의 박해를 소개했다. 그런데 이번 주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Islam in Indonesia: Tolerating intolerance"라는 제목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에 관용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기독교로서는 아주 고무적인 보도다. 한국의 일반 언론도 이러한 식의 보도가 나오기를 바란다.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Tolak은 떠나라 kafir은 불경건자를 의미

지난 5월 자카르타 외곽지역에 있는 베카시 지역교회를 무슬림들이 교회당을 향해 돌을 던지고 오물을 투척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교회는 교회 신축을 관계당국에 신청한지 5년이 돼도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이다.

지난 5월2일 이후 북 수마트라 지역에서는 16개 교회가 폐쇄 당했다. 특히 미국 가수 가가의 음악공연을 과격무슬림들의 반대로 정지 당하자 이 뉴스는 크게 보도됐다. 뉴욕의 한 인권단체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종파 폭력이 더 심하고 종종 일어나는 사건이 되고 있다고 했다.

얼마전 북부 나이지리아 조스라는 지역에서도 Boko Hama(서양교육을 금지하는 무슬람 과격단체)가 교회를 공격, 신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나이지리아를 강경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온건 무슬림도 공격한다.

## 5. 계속 불안한 중동국가

중동의 많은 국가들은 계속 불안한 상태다. 지난 14일 바그다드에서 또 수니파 테러리스트들이 시아파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고 이집트에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를 앞두고 이집트 국민들은 일종의 "두 개의 악" 하나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일본 NHK가 지난 5일 특집 방송을 했고, 14일 아침 영국 BBC도 힘든 선택의 선거라고 비꼬는 이집트 사람의 인터뷰를 인용했다. 심지어 일부 청년들은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튀니지야는 일종의 통금을 실시해야 할 정도로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주 시리아 정부는 아이들을 탱크에 태워 인간방패막이로 사용,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 국제사회가 분노하지만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 모든 세대 어우르는 교회공동체 건설

(1면에서 계속)

빌리 그레함 목사가 복음 전도자로 명성을 얻게 된 것도 바로 YFC 집회에서 "십대들이야말로 세상의 주인이고 지금이 바로 이들이 예수를 알아야 하는 시간"이라는 식으로 부흥집회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Young Life 사역을 시작한 짐 레이번(Jim Rayburn) 역시 빌리 그레함 목사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십대들이 누리는 문화적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청소년 사역의 철학을 밝혔다.

그러나 청소년 전문 사역단체들의 이러한 절충은 곧바로 어떻게 세상을 변혁시키고 개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효과적인 해답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따라서 YFC는 청소년에게 "몸의 순결"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는 당시 시대상에서 십대들이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동기가 됐다. 결국 전국적인 규모로 세상 문화로부터 그리스도다운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결단과 따름이 그리스도 문화의 대세로 자리 잡게 된다. 한마디로, 엘비스 프리리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더 의미 있고 흥분되는 일이라는 식의 정서가 십대들을 붙잡게 된 것이다.

결국 십대들은 예수를 안다는 것을 바로 예수와 사랑에 빠져 최고의 낭만과 흥분을 느끼는 것과 동일하다는 식으로, 신앙을 변용시켰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십대들은 자신들이 열광하는 '아이돌' 즉 엘비스나 유명 연예인, 운동 스타에 빠지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슈퍼스타로만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1978년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는 절대로 쇠퇴할 수 없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이는 1924년 사회학자들(Robert, Helen Lyden)이 밝힌 예상, 즉 기독교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쇠퇴를 보여준다는 연구를 전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그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이유가 이제 "습관"에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가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 전문사역단체들과 '미성년화'는 그리스도의 삶을 개인적인 감정적인 충만함을 누리는 것으로 대체시킨 것이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전통, 습관이나 사회적 압력이 아닌 개인적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교회로 가게 된 것이다.

현재 대형교회를 이룬 담임목사들은 이 당시 청소년 사역을 담당했었다. 실제로, 월로우크리의 빌 하이벨스 목사 역시 청소년 사역당

시부터 구도자 예배와 마케팅 프로그램 사용했다. 결국 1950-60년대 청소년 사역단체들의 성장과 함께 1970년대 백인 복음주의 교회의 성장은 빠른 찬양과 함께 엔터테인먼트에 빠진 찬양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YFC나 Young Life의 성장은 백인 복음주의 교회 성장의 전조였다. 그러나 '미성년화'된 기독교가 기독교의 본질인가?

'개인적으로 예수와 만났다'는 감정적 충만함, 스트레스 해결 그리고 경배 찬양에 심취하는 것만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조우에서 얻어지는 현상들에 2%가 부족하다. 신앙, 구원, 죄라는 언어를 보다는 "나는 정말 행복하다"는 감정만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를 구현하기에는 너무나 멀다. 십대들은 하나님이 마치 천사처럼 자신들을 돌봐주시고 챙겨주시는 신이지만 실제로 자신들의 삶 중앙에는 하나님이 없다.

현재 미국교회의 모든 세대들은 사춘기적 나르시시즘(narcissism)에 빠져있고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영성이라고 믿고 있다. 교회와 같은 종교적 기관들은 나쁜 것이고, 오직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만이 신앙의 중심이라는 '미성년화'는 미국의 기독교를 다시 활발하게 개화시켰지만 감당해야 할 희생은 너무나 크다. 바로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 미성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버클러 교수는 지역사회 교회공동체들이 십대나 청년들에게만 집중되는 예배 형식이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세대간(inter-generational)' 예배나 사역으로 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교회공동체 건설이 바로 '미성년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첩경이라는 것이다. 각 세대에 속한 사람들 즉 노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 장년들은 가족들을 돌보며, 청소년들은 이들로부터 배워 그리스도의 인격만큼 성숙에 이르러야 한다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재천명해주고 있다(엡5:21-6:4, 골3:18-4:1, 요일2:12-14).

교회공동체에는 십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 여정을 같이 한다는 사실을 버클러 교수는 다시 상기시켜준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미국 기독교의 미성년화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고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 제 5 회 청운교회 장학생 선발

청운교회에서 주님의 사랑 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 중 장학생을 선발하여 격려하고자 합니다.

## ● 대 상

High School Senior, College, Graduate School LA 거주하는 학생

## ● 자 격

일반 장학금: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목회 장학금: 선교사, 목회자 가정의 자녀 및 신학생

## ● 제출서류

1. 신청서 교부 - facebook group "Great vision church scholarship 2012" 에서 다운
2. 본인 에세이 (Letter size 2장 이하 한글작성)
3. 증명서류- 일반 장학금: 성적증명서, 첨기는 교회 담임목사, 혹은 학교 교사 추천서  
목회 장학금: 성적증명서, 첨기는 교회 담임 목사 추천서, 출석 교회 주보
4. 수여금액: 대학생(\$1,000), 고등학생(\$500)

## ● 접수마감

2012년 7월20일

## ● 접수처 및 문의

우편접수 : THE GREAT VISION CHURCH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90029

장학금 수여식은 2012년 8월 19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심사결과는 8월 11일까지 개별통보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전화문의는 사절하며 접수한 서류는 다시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청운교회

The Great Vision Church (CRC)

# 부목사님 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는 풀타임 부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1. 자 격
  - 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가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 (M.Div)
  - 2)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 3) 이중언어로 설교 할 수 있는 분
2. 구비서류
  - 1) 이력서
  - 2) 목사 안수증명서
  - 3) 학력 증명서
  - 4) 설교 CD 2개
  - 5) 목사님 추천서 (2인)
3. 제출마감 **2012년 7월 31일**
4. 제 출 처
  - 1) 주소: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 2) E mail: yspcpastor@gmail.com
5. 문 의 김대호목사 (215-542-0288)

# 영생장로교회

담임 이용결목사



#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지난주일은 아버지 주일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아버지를 위한 행사가 없습니다. 각 사회단체나 교회에서도 특별순서는 없습니다. 자녀들까지도 식사를 하고 하기는커녕 전화 한통도 없습니다. 어머니날이 되면 복새통을 이룹니다. 카네이션을 만들어 달아주기도 하고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며 용돈도 줍니다. 작년 5월 친구아내는 어머니날에 자식에게 승용차

를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아내를 비롯한 여러 친구 부인들이 몹시 부러워하던 모습들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얼마 전 '애끓는 부성'이란 제목의 기사가 신문의 전면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신마비 후유증 치료를 받고 있는 아들과 생이별을 해야만했던 한국인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기사내용이었습니다. 유학중인 아

들이 2008년 새벽 강도들에게 목 부근에 총을 맞고 전신마비가 되었다고 전합니다. 한국에서 인쇄소 및 콘도를 처분한 부모님은 서울과 휴스턴을 오가며 아들의 재활치료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지난 2월 한국에 일을 마치고 텍사스 주 조지 부시 공항에 도착한 아버지는 뜻하지 않은 의사불통으로 인해 국경세 관단속국(CBP) 요원의 오해를 받아 입국거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텍사스 한인사회와 타인종 정인지 교계관계자 등 각계 인사들의 도움으로 각고 끝에 아들을 만나 치료를 계속하게 되었다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애끓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져 기사를 읽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오래전 모 방송국에서 제작한 '남극의 눈물'이란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남극의 신사 펭귄의 생활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펭귄이 산란기가 되면 여

러 펭귄들이 한곳에 모여 짝짓기를 합니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수컷이 알을 품게 되는데 실수하여 알을 놓치게 되면 알은 순간에 얼어붙고 맙니다. 수컷은 알이 얼었는지도 모르고 애써 품으려 합니다. 알이 얼음에 미끄러지면 종결됨으로 알을 품으려 하는 모습이 애처롭게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느 수컷은 알과 비슷하게 생긴 얼음을 품으려 애를 써 봅니다. 성공적으로 알을 품은 수컷은 알을 놓치지 않도록 4개월을 서서 알을 품고 있습니다. 수컷은 4개월 후 앞에서 깨어난 새끼에게 목속에 저장했던 음식물을 꺼내어 새끼에게 먹이면서 멀리 먹거리를 가지러 간 암컷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암컷이 돌아오고 수컷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한날 미물 짐승이지만 새끼를 돌보는 것은 '애끓는 부성'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 홀로 설 수 있으면 부모 펭귄은 새끼에게 자신들이 살던 곳을 내어주고 먼 길을 떠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다 돌볼 수 없어서 이 땅에 아버지를 두기로 작정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운동이 전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 1960년대 이후에 남성들이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지면서 아이들 없는 가정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큼니다. 가정에서 여자들의 역할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들의 권위는 물론 존재감조차 위협받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 중에 "강아지는 나랑 놀아 주는데 아버지

는 왜 필요하지?"라는 말은 충격적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텍사스의 크리스토퍼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제 권위를 회복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계의 굶주림을 없애지는 못할지라도 몇몇 가정들이 절대 빈곤 이하로 침몰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동 지역의 평화는 가져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리의 갭단 소굴에서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 폭발을 완화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10대 미혼모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들의 위치가 회복될 때 사회와 가정이 바르고 건강해질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내용을 읽니다. 우리 아버지들이여 힘을 내시다. 우리 아버지들이여 힘을 내시다. 축 쳐진 어깨의 아버지들이여! 요즘 유행하는 불란서 버전으로 아버지들이여 "힘내 불어!"

# 푸/ 른/ 초/ 장

김풍운 목사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비행기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공황으로 물려왔다가 또 다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떠납니다. 모두 다 인생의 목적과 행복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E) 서(W) 남(S) 북(N) 네 방향의 첫 글자를 가지고 인생이 추구하는 방향을 정의하며 자신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도 잠은 살 수 없으며 보약은 사도 건강은 살 수 없고 보석은 사도 사랑은 살 수 없으며 관은 사도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돈은 인생의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돈을 관리하는 자

관사님은 자기가 지혜로웠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합격한 아들은 주일을 지키지 않고 지난 1년 간 사귀던 불신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죄를 지으므로 관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하여 데모하다가 날아온 돌에 맞아 즉사

헤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 3 방향은 힘(Strength)입니다. 지난 4월 16일 아침 영주 시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급생이 괴롭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괴롭힌 친구를 향하여 "절대로 내 장례식에 오지 말라. 만약 나타났다면 반드시 죽여 버리겠다"라고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친구들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는지 지금 너무 후회스럽다"며 마음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미국 부모들은 "남을 도와주는

달려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해룻이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은 인생이 가진 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이 필요하지만 그 힘 자체가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 4 방향은 명예(Name)입니다. 2003년 2월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사 베르나르 르와조가 영혼으로 자살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유명한 요리사였는지 그가 자살하던 날 프랑스의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정규

가짜 박사학위를 팔고 사며 현금 수십억을 들어 회장이 되려하는 목회자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하시는 목사님들께서 "목회하면서 돈, 여자, 명예 이 세 가지를 항상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조심해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마라 그가 죽으매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다"(시49:16-17).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잠25:27).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제 5 방향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그 제 5방향은 하늘이며 거룩하신 하나님(Holy God)이십니다. 돈과 지혜와 힘과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볼 때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뉴욕 닉스 농구팀의 제레미 린(Jeremy Lin) 선수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누구에게도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요... 이제 내 삶의 목적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실패를 경험했죠. 하지만 이는 나 자신을 보게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절대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사람들을 보거나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귀를 동서남북의 수평적인 차원에 두지 말고 하늘에 집중하며 사는 제 5방향인이 됩시다!(본문 24절)

# 제 5 방향인 예레미야 9:23-24

제 1 방향은 돈(Economy)입니다. 매사추세츠에서 한 젊은 엄마가 법정에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찢먹이를 차 안에 두고 잠시 마켓에 들어갔다가 나와 보니 자동차 키를 차안에 두었더군요. 시큐리티 가드가 더운 날씨에 아기를 차안에 두면 위험하다고 유리창을 깨려하자 "새로 산 고급차인데 집에 가서 키를 가져올 테니 기다려 달라"고 고집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민의 조상 아브람은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뜻은 소동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아내를 잃고 패가 망신하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족도 기근이 오자 베들레헬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가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죽고 거지처럼 되었습니다. 모두 다 돈을 행하여 달려간 결과입니다. 돈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참대는 사

들이지 돈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결코 행복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느니라"(마6:24)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도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 2 방향은 지혜(Wisdom)입니다. 서울의 모 교회 권사님이 아들을 서울대학에 입학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 교회생활을 중단하고 과외공부를 시켰습니다. 1년 뒤 그 아들은 서울대학에 합격하였고 그

하게 되었습니다. 지혜도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 가장 지혜로운 인물인 솔로몬은 전:18에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라고 하여 결코 행복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아인슈타인은 그의 풍부한 지식과 지혜에 대하여 칭찬하는 사람들 앞에서 손끝에 물을 찍어 떨어뜨리며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는 바닷물에 비하면 이 물 한방울에 불과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결코 지혜와 지식 그 자체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 지혜와 지식을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지

사람이 되라"고, 일본 부모들은 "남에게 패를 끼치지 말라"고 하는 반면 한국 부모들은 "절대로 남에게 지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말이 씩자 되고 있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은 전9:11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다투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은 전쟁의 승패가 인간이 가진 힘에 있지 않고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뉴스시간에 그의 자살소식을 보도했고, 며칠 후 그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될 정도였습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타이어 회사 미슐랭은 매해 프랑스 모든 식당을 등급별로 평가한 식당 안내서 "기드 미슐랭"(Guide Michelin)을 출간하는데, 베르나르 르와조가 경영하는 식당은 지난 27년간 줄곧 최고 등급인 별 세 개의 평가를 받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해 초에 발간된 그 안내서엔 그의 식당이 두 등급이나 강등, 별 한 개로 떨어져 있었고 이에 수치심을 깨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평소 생을 마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명예는 따라오는 것이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사학위논문은 표절한 정치인들,

http://www.israelacademy.com  
6월부터 이스라엘학이카데미의

장재일목사의명쾌한성경해설책이다!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는

# 바레복음

장재일목사  
504면 / 18,000원(1+13%)  
EBS / 25,000원(14+33%)  
신구문화당

밥하면서 보는

# 성경의 절기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성경의 절기를 잘 알고 싶다면 그때부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서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절기의 풍습, 이스라엘의 기후, 농사적 상황, 성전 건축사의 식물까지도 알버트 헨슬러 박사에게서 배워 기술해 놓았다. 성경의 절기에 대해 해결되지 않았던 궁금증이 있다면 이 책에서 시원하고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장재일 목사

- 후신신대원 총원
- 에쿠살림대학성경지도사학과교수
- 현세이대학Ph.D 과정
- 현세이대학교회학목사
- 현한국어사서연구소연구위원
- 현이스라엘학이카데미대표

서울국제도서전  
BOOK FAIR 2012  
6.20.-24.  
COEX A/B홀  
www.sif.or.kr

• 한국인터넷주소 관리위원회 • 홈페이지 www.israel.or.kr • 주소 서울영등포구여의도 164-3 • 전화 02247-1104 • 출판사인사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 세계가 가뭄으로 땅이 갈라져서 하늘을 향하여 큰 입을 벌리고 있다. 한국은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각하다고 한다. 한국의 기상청은 강수량과 증발량, 일사량 등을 종합한 '가뭄 판단 지수'로 봤을 때 '매우 위험' 단계인 지역이 전국 76개 구역에서 무려 58곳으로 76%에 이룬다고 밝혔다. 금년의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줄면서 전국 지역의 76% 가뭄을 겪고 있고, 전국 저수율도 54%밖에 되지 않아서 모내기철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의 대청호가 바닥을 드러냈다. 수위가 66m로

미 대륙 남쪽으로 확산해가는 형국이다. 세계 기상전문가들은 남미의 가뭄은 라니냐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라니냐는 동태평양의 해수온도가 평년보다 0.5도 낮은 저수온 현상이 5개월 이상 지속하는 이상해류 현상이다. 이는 전 세계에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촉발시키는데 때 아닌 장마나 가뭄, 추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아프리카 지역도 이디오피아, 수단, 에티오피아는 가뭄이 지역의 불안정을 부추기고 있다. 소말리아, 지부티, 케냐는 60년 만에 가장 큰 가뭄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Luc Gnacadja 회장은 "지구촌 기후 변화와 토지 황폐화로 인한 가뭄과 사막화 현상이 전세계 식량수급과 가난 극복 노력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사실 1950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약19억 헥타르(47억 에이커)의 토지가 황폐화 되었다. 이 결과 곡물 추수량 감소, 강우 패턴 변화와 함께 전세계 수백만 명이 기후 악화의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 평균 약 200만 헥타르(3,000만 에이커)의 토지가 매년 토지 황폐화를 겪고 있다. 토지 황폐화 및 사막화는 UN식량농업기구가 전세계의 식량수요를 채우기 위해 2050년까지 곡물 수확량의 70%가 증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감안할 때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현재 전세계 곡물 생산량 가운데 44%가 건조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또한 빈곤선(하루 1.25달러 미만 소득) 이하에서 살고 있는 전세계 12억 인구 가운데 절반이 건조지역에서 살고 있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유발된 가뭄, 토지 황폐화가 더 심각한 가뭄을 일으키고 기후변화,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는 심판을 내리셨다(왕상17장). 물론 하나님은 극심한 가뭄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해주셨다. 그릇 시냇가에 서도, 사르밧에서도 지켜주셨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한 가뭄에 대하여 경고하였다(렘14장). 예레미야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바벨론에 가뭄이 임하여 심판할 것이라고(렘 50:38-39) 예언했다. 그 예언은 이루어지며 바벨론은 황폐해 되었다. 왜 이런 세계적인 가뭄이 오는가? 과학자들은 이상 기온과 지구의 온난화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실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의 탐욕은 문화명령(창1:28)을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의 생태계의 불균형은 이러한 가뭄을 가속화 시킨다. 또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전 세계적인 가뭄이 종말론적인 징조임을 안다(마24:7-8). 가뭄은 기근의 전조적인 징조이다. 가뭄은 기근을 가지고 온다. 기근은 여러 가



### 전 세계적인 가뭄 재난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해천 목사

내려갔다. 북한의 가뭄도 극심하다. 북한은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서해안 곡창지대에 물이 부족한 위기상황이라고 북한 자체에서 인정한다. 중국은 50년 이래 최악의 가뭄을 해소하기 위하여 균용기를 동원해서 양자강의 물을 끌어오고 있다. 세계 최고의 담수호인 중국의 보양호는 바닥이 드러났다. 지난 3월말 UN의 IPCC(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폭염과, 홍수와, 가뭄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가뭄으로 찌꺼 갈라진 것이 남미의 모습이다. 남미는 칠레부터 콜롬비아,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자연재해를 겪는다. Latin America Herald Tribune 6월 보도에 의하면 멕시코의 가뭄으로 인하여 농산물 생산이 40%가 감소되었다고 한다. 북부 멕시코는 70여년간 가뭄이 축적되어왔다. 브라질과 파라과이는 절망상태이다. 아르헨티나는 2008-9년 동안에 지난 70년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 농산물은 1/3로 줄었다. 브라질 남부지역은 생산량이 떨어지고, 수개월째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식수난에 직면하고 있다. 식료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가뭄은 남

을 겪고 있다. UN의 보고에 의하면 약 1천만명이 고통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 동쪽의 나라들은 모두 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중동도 마찬가지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터키를 위시한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에도 가뭄이 극심하다. 스페인도 70년만의 가뭄이다. 이스라엘도 8년째 가뭄이다. 인도의 가뭄도 극심하다. Global Assessment Report on Disaster Risk Reduction(GRA)에 의하면 지난해 시리아는 가뭄으로 75%의 농작물의 손실을 입고, 또한 가축은 85%나 잃었다고 한다. 미국도 가뭄이 휩쓸고 있다. 미국의 사막화 현상은 이미 알고 있는 바이지만 텍사스 역시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 국가기상청에 의하면 2011년 텍사스는 가장 건조한 해로 기록을 세웠고 2번째로 뜨거운 해였다. 2012년에 나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의 서부는 1930년대 10여년에 걸친 가뭄으로 극도의 고통을 당했었다. 문제는 이번의 가뭄은 얼마나 길지 100년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Texas Forest Service에 의하면 텍사스는 가뭄으로 이미 5억 그루 이상의 나무들이 말라죽었다. UN의 사막화 방지 위원회(UN

식량수급, 식수부족이 생긴다. 이로 인한 무력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사실 지구상의 건조지역 대부분이 전쟁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충돌은 토지, 물과 같은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가뭄이나 식량 부족에 더 이상 대처할 방법이 없어질 때 대규모 인구가 일어나고 이것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전 세계적인 가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성경의 세계에서도 가뭄은 인간이 경험하는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이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연강수량이 400ml 밖에 되지 않는 척박한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그 땅은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뭄의 위협으로 가득찬 땅이었다. 사실 믿음의 선조들은 가뭄을 통한 고통을 겪었다. 순종하여서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이삭도 역시 가뭄으로 인한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유혹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순종한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러나 가뭄이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사는 생활을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가뭄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던 도구이기도 하다. 극도의 우상숭배를 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북쪽 이스라엘에 3년만

지 경로로 오지만 가뭄이 그 주된 요인이다. Williams Myers는 미국 남부의 보수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인 바이블 벨트에 극심한 가뭄이 온 것에 대하여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주장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영적인 가뭄이다. 죄가 가지고 오는 가장 첫 번째 증상은 영적 침체이다. 영적인 가뭄이다. 시편에서 다윗은 범죄한 자기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했다(시32:4). 에스겔은 애가를 지어 범죄한 이스라엘이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심기되었다(겔19:13). 영적인 가뭄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이다. 전 세계적인 가뭄에서 이기는 비결은 이삭과 같은 순종이다. 영적 가뭄을 그치는 것은 3년만의 우로가 내리지 않은 극심한 가뭄을 끝내는 데 사용된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온 '큰 비의 소리'이다. 전 세계적으로 뒤덮는 가뭄과 영적인 가뭄의 소식은 우리들의 엘리야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다. 주님이 보내주시는 영적해갈의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전 세계적인 가뭄의 시대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은혜를 앙망한다.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 저는 소명을 받아 장차 목회자가 되기 위해 꿈꾸는 신학생입니다. 이제 1년 후에 신학교를 졸업하면 부목사를 경험하고 개척하여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려면 무엇을 잘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LA에서 신학생

**A:** 장차 목회자가 되려는 형제님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목회자가 쌓아야 할 내공은 너무나 많아서 이 짧은 지면에 몇 가지만을 소개합니다.

첫째, 기본기가 강해야 합니다.(Fundamental). 원래 야구에서 투수들을 훈련시킬 때 고등학교까지는 철저히 직구와 커브만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직구를 완벽하게 던지는 틀이 갖춰지기 전에 변화구로 승부하는 것은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해놓고 조급하게 집의 외관을 공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그 어떤 직업보다 목회자야말로 기본기가 강해야 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기본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은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설교 한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마치 프로축구선수에게 일주일에 몇 시간만 게임에 뛰면 되니까 좋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 몇 시간을 뛰기 위해 선수들이 일주일 내내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한번의 설교를 위해 평균 10-20시간을 준비해야 한다. 그 습관을 평생 굳혀야 합니다.

### 기본기에 강하고 독서, 내면상처 없어야

부목사로 있을 때는 설교할 기회가 적어 가끔 설교해서 히트를 치면 순식간에 교회에서 스타가 되고 본인도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담임목사가 되어 매주 설교하게 되면 잘하는 것은 기본이고 한주라도 설교의 파워가 떨어지게 되면 당장 교인전체의 가슴거리, 근심거리 기도제목이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되려면 형제님도 지금부터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목회자 지망생들에게 세 가지의 기본기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첫째는 묵상(Contemplation), 2)기도(Prayer), 3)고난(Persecution)입니다.

둘째 독서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학벌보다 중요한 것이 평생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특히 영성고전들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국내외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집과 글들을 끊임없이 읽어나가야 합니다. 인문고전을 비롯해 리더십과 시대를 읽는 책들을 계속 읽고 노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 지성이 풍부해야 그것을 초월하는 영성도 빛이 나는 법입니다.

셋째, 내면세계의 상처들을 치유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상처를 가슴에 품고 목회하면 양심이 독을 먹게 됩니다. 목회하다가 여지문제 돈 문제로 사교를 치는 목회자를 보고 놀라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건이 하루아침에 터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과 내면의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흘러나온 것입니다. 목사는 사람의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상처가 없어야 합니다.

## 담임목사청빙

뉴욕의 맨해튼과 가까운 뉴저지 주의 유니온 시시에 위치한 허드슨교회에서는 공역중인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영혼을 사랑하며 헌신하신 목사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 1. 자격**
  - a.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M. Div 및 이와 동등)으로 PCA 기법이 가능하신 분
  - b. 5년 이상의 Full Time 목회 경력이 있으신 분
  - c. 연령: 사오십 대, 한국어, 영어 이중 언어 가능하신 분
- 2. 제출서류**
  - a. 이력서 1부
  - b. 목사 및 가족소개서(성경배경, 신앙경리, 사관 포함) 1부
  - c. 목회비전: 복음 소명 및 목회 철학, 교회비전 및 운영 명 포함 1부
  - d. 설교 동영상 2편본(CD, DVD, Web-link)
  - e. 추천서 3통
- 3. 제출마감**  
2012년 8월 1일(신앙광고 2012년 6월 1일, 60일간)
- 4. 유의사항**
  - a.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b. 서류 제출이나 문의사항은 가능한 이메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 선정된 분에 한해서만 면접을 위하여 개별 통지 합니다.
  - d. 개별 통지된 분께는 건강 진단서, 설교 링크 등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 e. 문서는 Word Doc 또는 PDF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허드슨교회 청빙위원회  
청빙위원장 김진수 목사  
우편: Hudson Korean Presbyterian Church  
Attn: Pastor Nominating Committee / Elder: Chisoo Kim  
2019 West St, Union City, NJ 07087  
E-mail: hudsonpca@gmail.com

허드슨 교회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 및 동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낼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독사 <input type="checkbox"/>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_____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에  
보내며  
광고  
접수합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남아시아의 비하리(BIHARI)



몇몇 비하리 종족들은 인도와 네팔, 피지, 방글라데시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다. 그들의 중심지역은 인도의 비하리 주에 있으며 네팔 남부의 서부 테라이 주까지 이른다. 마가디와 나그푸리족 등의 일부 종족은 서부 벵갈 주에서도 볼 수 있다.

비하리족은 몇 개의 방언을 사용하는데, 그 중 가장 흔한 것은 보즈푸리아이다. 이 방언은 문자는 매우 적지만 구전되는 민담이 많다. 나그푸리와 마가디어 같은 다른 비하리

의 방언들은 보즈푸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아마 의사소통이 되는 것 같다. 네팔에 있는 비하리족의 대다수는 마이틸리족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하리어와 마이틸리어를 함께 사용한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비하리족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피난을 뚫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1947년에 인도가 분열돼 인도 힌두국가와 파키스탄 이슬람국가로 뿔뿔이 찢어졌을 때, 일부 비하리족은 무슬림들을 막아내기 위해 싸웠다. 하지만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구 동파키스탄)가 두 개의 분리된 국가가 되면서 우르두어를 사용하는 이 비하리족들은 벵갈어

를 지배적으로 사용하는 방글라데시에 그대로 머물렀다.

#### 삶의 모습

일부 비하리족은 대 히말라야 산맥의 언덕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고도 1,000피트나 되는 조밀한 정착지에 가족을 짓는데 부유한 비하리족은 대개 가와지봉이 있는 진흙 벽집에서 살며, 가난한 사람들은 초가 지붕으로 된 빈약한 진흙 벽집에서 산다. 어떤 비하리 공동체는 네팔 중남부의 치타완 주에 위치해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초가 지붕이 있는 석조가옥에서 산다. 사회행정은 지역적인 수준으로 마을 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

1971년 이후 방글라데시는 비하리족을 열등민족으로 간주했으며 그들이 파키스탄에 충성을 바치고 있다고 분개한다. 불행한 것은 파키스탄 정부는 비하리족을 돕기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하리 인구의 약 3/4가 경작지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거의 전 부 농업에 종사한다. 생산물은 '하트'(hat)라고 하는 매주 열리는 시장에 내다팔며 이것은 그들의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하리족 대다수는 카스트 중 하층에 속하며 비하리족의 부족문화는 많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독교와 산업화, 새로운 통신연락망, 부족 복지계획,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충격을 가져다주고 있다. 또한, 인도와 네팔의 사람들은 두 나라를 거쳐 흘러내리는 히말라야 물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원을 사용하기 위해 그들은 서로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신앙

대부분의 비하리족은 힌두교도

이지만 상당한 수의 무슬림들도 있다. 무슬림 대부분은 네팔과 방글라데시, 인도의 북부 비하리 주에 살고 있다. 힌두교도들은 기본적으로 3가지 주요 신을 숭배하는데, 즉 "브라마"(Brahma, 창조자)와 "비쉬누"(Vishnu, 보존자), "시바"(Shiva, 파괴자)이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비하리족의 부족문화는 많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독교와 산업화, 새로운 통신연락망, 부족 복지계획,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충격을 가져다주고 있다. 또한, 인도와 네팔의 사람들은 두 나라를 거쳐 흘러내리는 히말라야 물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원을 사용하기 위해 그들은 서로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힌두교에서는 영혼은 결코 죽지 않으며, 몸이 죽은 후에도 다시 태어나 환생의 과정을 겪는다고 가르친다. 업보(karma)의 법칙에 의하면 사람이 선한 삶을 살면 그의 영혼은 보다 높은 상태로 다시 태어나지만 악한 삶을 살면 보다 못한 모습으로 환생한다고 한다. 힌두교 부족들의 마을 대부분에는 "거룩한 숲"이라고 불리는 무도장이 있으며 이곳에서 마을 사제에 의해 예배가

행해진다.

비하리족 중 소수(약 5%)는 "자이나교"이다. 자이나교는 6세기에 인도에서 만들어진 종교이며, 처음의 몸이 육체적으로 죽고 난 후에도 또 다른 몸을 가지고 영혼은 계속 살게 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힌두교와는 반대로 최상의 존재를 부정하며 카스트 제도와 제사지내는 것도 거부한다.

#### 필요로 하는 것들

비하리 주의 역사는 정치적 급진주의와 폭력으로 얼룩져있으며 인도에서 가장 후진적이다. 따라서 물질적 필요가 상당히 많다. 방글라데시의 비하리족은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국가와 자신들이 위해 투쟁을 바치는 국가 모두에게 거부당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만 참된 영접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창끝'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 안타까운 부상

1956년 남미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한 미국 휘튼대 5인의 이야기를 그린 베스트셀러 '창끝(End of Spear)'의 저자인 스티브 세인트(62살) 선교사가 최근 '나는 자동차(flying car)' 시험 도중 부상을 입었다고 I-TEC에 18일 밝혔다.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개최될 제 220회 미국장로교(PCUSA) 총회에서 동성애 문제가 다시 한번 부상될 예정이다. 지난 총회 때 상징됐다가 향후 연구과제로 넘겼던 결혼의 정의 변경 조항 안건은 결혼의 정의를 '남녀 간의 결합'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219회 총회 당시 찬성 348, 반대 324, 기권 6표의 근소한 차로 안건 자체를 다음 총회로 보류하기로 하고 토론하지 못한 채 부결된 바 있다. 미국장로교 총회에서 '결혼 정의 변경' 안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219회 총회 때 1997년 이후 4번째로 시도됐던 '결혼과 독신 조건'의 삭제가 실제 인준되면서 더 주목받고 있다.

당시 통과된 안건은 미국장로교 헌법 G-6.0106b 조항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의 언약을 맺어 정절하게 살거나 독신으로 순결하게 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후보자는 필요한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모시는 자여야 한다. 치리기관(당회 혹은 노회)이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한다'는 문구로 대체하자는 제안으로 찬성 373, 반대 323, 기권 4표로 통과됐다. 결국 지난해 총 173개 노회 중 과반수가 찬성해 미국장로교 내 동성애자들도 교회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편 올해 '결혼 정의 변경'에 대한 안이 통과되면 미국장로교는 미국연합그리스도의교회(United Church of Christ) 다음으로 동성결혼을 공식 인정할 미 주류 교단이 된다.

신천지, 포교활동에 김장환 목사 이력 사칭 '충격'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자체 집회홍보지에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김장환 목사가 자신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기재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6월 11일과 12일 안산시온교회에서 안

산지역 성도들을 위한 신천지 말씀 대회 홍보지의 맨 뒷장에는 '목회자와 장로회 양심선언'이란 제목으로 이들의 기자회견 사진과 함께 '왜 성도들이 신천지로 가나요?', '신천지가 바로 진리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문구가 표제어로 달렸다.

그리고 하단부에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장환(기독교한국침례회) 목사는 '신천지는 말씀이 있고 우리 목회자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비방만 할 것이 아니라 신천지에 가서 말씀을 배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총회 내에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외에 동명이인이 없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이에 한국교회 정통교단과 명망 있는 원로인사가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를 마치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 전국목회자신천지연구대책단 소속의 목회자들이 신천지 교회는 이단이 아니라고 양심선언을 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의 목사로 소개된 김장환 목사가 실제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속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해당 교단에서 발급한 김장환 목사의 목사 안수증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합동총회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목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결국 신천지가 내세우는 김장환 목사는 실제로 묘연한 것이다. 한국교회에 대한 신천지의 포교활동이 날로 교묘해져 가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대응과 성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북한 복음화 위해 성경 6백만 권 비축하라"

국제예수전도단(YWAM)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77. 사진) 목사가 통일 시대를 대비해야 할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북한 복음화 전략'에 대해 조언하면서 "신속한 복음 전파 위해선 최소 6백만 권의 성경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무학교회(담임 김창근 목사)는 지난 14일 동교회에서 개최된 제8회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서 첫 강의 강사로 초청된 커닝햄 목사는 통일 시대를 대비해야 할 한국교회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다방면의 전략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에서 정부 해체가 일어날 상황에서 신속한 기독교 복음화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초기에 신앙과 예배, 전도 활동이 자유롭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크게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에 의한 개방 수위에 따라 전략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 △북한 주민들에 직접 참여할 가장 적합한 그룹을 정할 것 △남한의 교회들이 신속히 동원되도록 준비할 것 △남한의 교회가 준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범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참여하는 운동을 일으킬 것 등이다.

커닝햄 목사는 정부의 개방 수위에 따른 전략으로 '충분한 성경의 비축'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다. 북한의 경우 기독교인들이 신속하게 복음 전파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대규모로 제공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남한에 충분한 성경이 비축돼 있어야 한다는 것. 이에 그는 "현재 북한에는 모두 590만 가구(도시 360만, 농촌 230만)가 있으며, 가구별 평균 가족 수는 4명"이라며 "가장 우선순위로 최소한 600만 권의 성경을 인쇄해 남한에 비축해 둬으로써 북한에 긴급 수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커닝햄 목사는 "북한에는 총 209개의 시, 구, 군별 정부 행정 단위가 있는데 이들 시, 구, 군의 인구 규모는 남한의 교회나 선교단체가 접근이 가능한 규모"라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 내에서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고, 교회와 선교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현장 활동 단위를 마련해 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그는 △가정 △종교 △교육 △미디어 △축하 행사(예수, 연애, 스포츠) △경제(과학, 기술, 사업, 보건) △정부(입법, 사법, 행정) 등 7개 영역에 따른 사역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역량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 미국장로교 총회, 동성애 혐의 올에도 계속

##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 제 27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를안

## 주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김기원 목사  
(서울 장위제일교회)

### 주여! 정직한 목회자 되기 원합니다(2)

본문 빌립보서 4:8

우리는 평양 대부흥을 회개운동으로 생각합니다. 1902년 7월23일자 황성신문(皇城新聞)에는 지방관들이 불법행위에 강력히 항거하는 기독교인들을 아예 동학의 무리로 몰아서 잡아가기도 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1897년 5월 7일자 그리스도 신문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이 없이 공평해서 선한 대접을 받았다는 사례도 실려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의 수는 불과 8천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따르는 분명한 열매가 맺어진 결과입니다.

참 회개는 영적 승리는 물론이고 생활의 승리까지 가져옵니다. 또한 정직한 회개 없이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한 요나가 외칠 때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회개한 베드로를 통해 하루에 3천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영적 역사의 질서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가 회개이고, 회개해야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 예수님의 첫 메시지, 베드로의 첫 메

시지, 스테반의 메시지까지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교회에 핵심 메시지가 회개의 복음이라고 믿는다면 회개의 실패는 신앙실패요, 인생실패요, 모든 것의 실패의 핵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회개까지도 거짓 회개를 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3) 물질문제가 정직해야 합니다. 인간이 물질문제에 정직하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엡4:28).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유혹에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간, 사울, 개하시, 가룟유다, 야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 분쟁 이유 등등입니다.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자부한 율법사도 자신의 물질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일에는 결국

실패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부패 역시 물질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정직하지 못했고 정성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수입도 지출도 정직

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선교라는 미명하에 정직하지 못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낭비와 격에 맞지 않는 통 큰 지출은 정직의 결여에서 나온 또 다른 형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물질사용이 떳떳해야 합니다.

4) 설교가 정직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가장 핵심사역이 설교 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뉴턴은 "세상을 만드신 분외에 는 목회자를 만들 수 있는 자가 없

다"고 했습니다. 설교는 정직한 자의 고백이어야 하며 자신이 깨닫고 받은 감동을 나누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목회설교는 섬김의 삶을 고백하는 면이 강하기도 합니다.

설교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개인적 인격을 통하여 인간의 인격에 전달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덕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어야 하기에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충고를 그대로 전달해야 하며 그리고 복음, 성경교리, 가르침, 견책, 권고 그리고 경고를 그대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행 20:27 "이제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원하는 진리를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일이며 하늘의 신비를 선포하는 일하기에 조금도 가감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 성경 말씀에 대하여 정직해야 합니다.

에는 모세가 이 직무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고 그 후에 칠십인의 장로들이 이 일을 도와 일했습니다.(출24:12/민11:16,24-25) 또 이스라엘 역사에 오래전부터 선지학교도 있었습니다(삼상10:5-6).

초대교회는 설교로 은혜 받고 흠어져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세상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이 지정하신 가장 건전한 일차적인 도구로 인식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전파하는 방법 중에 설교보다 더 효율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목사(목회자)로서 가장 위대한 일은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는 교육 경험을 포함함은 물론이고 죄인들을 회개케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이 되도록 성경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세 골격은 역사, 체험, 예언입니다. 이 골격은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 예화가 정직해야 합니다.

예화가 정직하기 위해서는 정확해야 하고 육하(六何)원칙에 의한 전달이어야 합니다.

예화를 전달할 때는 히브리적 사고방식이 필요하고 예화를 적용할 때는 헬라적 사고방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화는 설교의 이해와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예화가 주제가 되거나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거가 빈약한 예화나 정확하지 못한 예화는 같은 예화인데 전하는 사람에 따라 내용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목회자 또는 설교자) 모든 다양한 수단과 도구들은 설교를 돕도록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 중 예화나 간증이 많은 도움을 줍

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거나 부풀린 간증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제동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 간증이 정직해야 됩니다. 특히 영적인 간증일 경우는 객관적 확인이 힘들기 때문 정직하지 못한 자의 간증은 거짓 및 부풀린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열등감이나 자신을 가장해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자에게는 정직한 간증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한 때 죽었다가 살아나 지옥을 보고 왔다는 간증자가 병원에 낫자도 병명도 의심스러워 추적한 결과 거짓임이 드러난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12번 반복해도, 내용이 동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주는 믿음에 대한 경외심과 강단의 존엄성과 엄숙한 직무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진다면 이 거룩한 직능을 경솔하게 수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 선포가 정직해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로 시작되는 메시지였습니다. 거짓선지자들은 자기들의 말이나 생각을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했으며 또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목회자는 양떼의 영혼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선포가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구이언 하는 자에게 교회에 직분이나 더디구나 선포의 사역을 맡길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되심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옮겨 분별(딤후2:15)할 수 있는 많은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b>김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 예배: 오전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9:1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15 주일 4부 예배: 오후 2: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www.kimchurch.org Tel: (714) 931-6881, Fax: (714) 931-4558 6908 Knott Ave, Brea, CA 92625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권유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1:30 주일 5부 예배: 오후 11: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www.nasunchurch.org / www.lbc.org Tel: (925) 452-8800, Fax: (925) 452-8877 1750 N. Edgewood St., L.A. CA 90027	<b>나성열린교회</b> 담임목사: 박현성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후 12:30 주일 5부 예배: 오후 6: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www.nasunchurch.org Tel: (213) 419-1800, Fax: (213) 419-8911 1825 Wilshire Blvd., L.A. CA 90027	<b>나성서부교회</b> 담임목사: 이경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www.nasunchurch.org Tel: (323) 930-7323, Fax: (323) 930-1828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변정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www.nasunchurch.org Tel: (714) 829-6245, Fax: (714) 829-8187 8101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김현민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www.nasunchurch.org / www.lbc.org Tel: (714) 941-2778 / Fax: (714) 941-8787 1643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9	<b>남가주리더교회</b> 담임목사: 김요셉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 www.nasunchurch.org Tel: (714) 941-8225, Fax: (714) 941-1983 1928 E. Western Ave., L.A. CA 90019
<b>남가주사망교회</b> 담임목사: 노정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1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 www.nasunchurch.org Tel: (714) 772-7771, Fax: (714) 772-7777 1111 N. Broadway St., Anaheim, CA 92801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 www.nasunchurch.org Tel: (925) 719-2244, Fax: (925) 719-2229 150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b>등문교회</b> 담임목사: 최재우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 금요일 예배: 오후 7:45 www.nasunchurch.org Tel: (213) 489-0425, Fax: (213) 489-9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7	<b>디아스포라교회</b> 담임목사: 김영희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www.nasunchurch.org Tel: (213) 929-7718, Fax: (213) 929-6688 227 Gabriel Garcia Marquez St., L.A. CA 90033	<b>드림교회</b>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www.nasunchurch.org Tel: (925) 930-6880, Fax: (925) 930-6872 1395 E. Cotuit Ave., Pasadena, CA 91106	<b>삼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www.nasunchurch.org Tel: (925) 930-6880, Fax: (925) 930-6872 501 E. Lido St., La Habra, CA 90631	<b>미주양교회</b> 담임목사: 지용택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www.nasunchurch.org Tel: (213) 929-8777, Fax: (213) 929-8779 518 E.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 평안교회</b> 담임목사: 송정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www.nasunchurch.org Tel: (714) 745-8191, Fax: (714) 745-8677 224 W. Ventura Blvd., L.A. CA 90024	<b>방주선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www.nasunchurch.org Tel: (925) 930-6880, Fax: (925) 930-6872 8728 Marconi Ave., Cerritos, CA 90606	<b>배달인인교회</b> 담임목사: 손연식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www.nasunchurch.org Tel: (925) 930-6880, Fax: (925) 930-6872 15700 Marconi Ave., Cerritos, CA 90606	<b>맨큐버라교회</b> 담임목사: 임길택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www.nasunchurch.org Tel: (925) 930-6880, Fax: (925) 930-6872 3138 134th St., Surrey, BC, Canada, V2V 6P8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백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www.nasunchurch.org Tel: (925) 930-6880, Fax: (925) 930-6872 1781 W. La Habra St., La Habra, CA 90621	<b>브리지교회</b> 담임목사: 장성경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www.nasunchurch.org Tel: (714) 941-8225, Fax: (714) 941-1983 1928 E. Western Ave., L.A. CA 90019	<b>세계비전 교회</b> 담임목사: 김요셉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www.nasunchurch.org Tel: (925) 930-6880, Fax: (925) 930-6872 15314 Alondra St., Norwalk, CA 91062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재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www.nasunchurch.org Tel: (213) 745-8191, Fax: (213) 745-8677 224 W. Ventura Blvd., L.A. CA 90024	<b>새창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www.nasunchurch.org Tel: (310) 325-5201, Fax: (310) 325-4387 2384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b>인디옥장로교회</b> 담임목사: 지용택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www.nasunchurch.org Tel: (213) 745-8191, Fax: (213) 745-8677 224 W. Ventura Blvd., L.A. CA 90024	<b>임버인교회</b> 담임목사: 한중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www.nasunchurch.org Tel: (925) 930-6880, Fax: (925) 930-6872 5101 Wilshire Blvd., Irvine, CA 92614	<b>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염영민 주일 1부 예배: 오전 8:1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www.nasunchurch.org Tel: (714) 941-8225, Fax: (714) 941-1983 8200 Boba Ave., Westminster, CA 92682	<b>오션교회</b> 담임목사: 정성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www.nasunchurch.org Tel: (714) 941-8225, Fax: (714) 941-1983 2728 James M Wood Blvd., L.A. CA 90026	<b>원서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임규서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www.nasunchurch.org Tel: (925) 930-6880, Fax: (925) 930-6872 634 S. Normandie Ave., L.A. CA 90005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www.nasunchurch.org Tel: (714) 941-8225, Fax: (714) 941-1983 1648 W. Ventura Blvd., L.A. CA 90024	<b>인랜드교회</b> 담임목사: 박진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www.nasunchurch.org Tel: (925) 930-6880, Fax: (925) 930-6872 1101 N. Gate Ave., Pomona, CA 91768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심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www.nasunchurch.org Tel: (213) 745-8191, Fax: (213) 745-8677 2801 S. Grand Ave., L.A. CA 90006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이은준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www.nasunchurch.org Tel: (925) 930-6880, Fax: (925) 930-6872 173 E. Duane St., San Bernardino, CA 92406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영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www.nasunchurch.org Tel: (213) 929-7718, Fax: (213) 929-6688 2448 S. Verdugo Ave., Azusa, CA 91702	<b>로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www.nasunchurch.org Tel: (925) 930-6880, Fax: (925) 930-6872 1806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함</b>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930-0009 Fax: (323) 930-0048 ■ N.Y.: Tel: (718) 930-0009 Fax: (718) 930-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의 사도



#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93. 성경의 쿡쿡증들(14) - 왜 하나님은 진화의 방법을 쓸 수 없었을까?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과학에 의존하는 현인이 아주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진정한 과학지식이 아닌-관찰과 실험이 불가능한-진화도 분별없이 참 과학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 지식을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주저 없이 사용하곤 한다. 진화를 사실로 받아들여 창조를 재해석한 사람들이 많은데 유명한 사람들로 샤프링, C.S. 루이스, 맥그라스, 도브잔스키, 반 틸, 그리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유전학자 프랜시스 콜린스 등이 있다.

사람들은 그들의 창조 이론을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부른다. 이 창조 이론의 내용은 한 마디로 말하면, 창조의 신이 학교에서 배운 진화 역사 과정을 거쳐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생겨나도록 섭리를 했다는 것이다.

유신론적 진화론을 지지하는 인물들 중에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고생물학자인 샤프링(1881-1956)은 천주교의 사제이자 가톨릭대학의 교수를 역임했으며 1923년에는 북경원인(北京遠人) 발굴 작업에도 참여하였다. 말년에는 미국에 와서 살았는데 그의 영향은 개신교에까지 미쳤다. 그는 사람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고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

우리 개신교에 대중적인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C. S. 루이스(1898-1963)이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15세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있는 무신론자가 되었다. 다시 1929년에 유신론자로, 1931년에 마침내 기독교인이 되었다. 1940년에 출판된 "고통의 문제"에서 타락을 설명하면서 그는 이렇게 썼다. "오랜 세월을 걸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인간성의 매체가 될 동물의 형태를 완성시켜주셨습니다. 그는 엄지손가락이 손가락

에 닿을 수 있는 손과 언어를 발음할 수 있는 턱, 치아, 목, 그리고 이상적인 사고를 구체화하는 물리적 동작을 전부 수행할 수 있게 만든 복잡한 뇌를 그 형태에 부여하였습니다. 그 피조물은 인간이 되기 전 오랫동안 이런 상태로 존재했을 것입니다....이윽고 때가

## 창조 재해석한 유명 유신론적 진화론(BioLogos)자 많아 진화 인정하는 모든 창조이론들은 예수님 필요성 없애



**유신론적 진화론의 의미: 사람의 죄와 죽음은 상관이 없다.**

이르자 하나님은 이 유기체의 심리적, 생리적 기능에 새로운 종류의 의식, 즉 '나'라고 말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대상화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고 진선미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시간 너머에서 시간이 흘러 지나가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의식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밖에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유신론적 진화론자들로는,

분자생물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을 뿐 아니라 복음주의 신학자인 성공회의 사제인 알리스터 맥그라스(1953- ), 하버드 대학의 진화생물학자이며 러시아정교회 신자인 테어도시어스 도부잔스키(1900-1975), 칼빈대학교의 물리학자 하워드 반 틸(1938- ),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혁명적인 공을 세워 유명해진 유전학자 프랜시스 콜린스(1950-) 등이 있다. 콜린스는 하나님의 언어(The Language of God)란 책을 통해 최근 신학계에서도 유명해졌는데 그는 그 책에서 "유신론적 진화론"이란 구식 단어 대신 "BioLogos"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종교 활동에 열심이다.

과학자들 중에 관찰과 실험으로 확립된 이론이나 법칙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자연과학을 전공한 수많은 박사들 중에도 진화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들은 진화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진화 가설은 증명될 수 없는 역사일 뿐 아니라 실험과 학의 원리와 법칙에 180도로 반

표현을 적어 넣었다. 성경의 첫 한 사람 아담을 제거한 것이다.

또, 진화론적인 지질시대인 고생대-중생대-신생대가 사실이라면 신생대 말 사람이 출현하기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화석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이 존재하기도 전에 해야될 수 없이 많은 동물들이 죽었다는 말이다. 그 죽음은 사람의 죄와 전혀 상관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가상의 진화 역사는 죄와 죽음의 상관관계를 끊어버린다. 결국 진화를 받아들이면 모든 창조 이론들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없애버린다! (고생대-중생대-신생대의 지층들은 모두 다 노아홍수 때 만들어진 것으로 그 속에 들어있는 화석의 연대가 동일하다. 이 진화론의 역사는 측정된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진화의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앞에서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었던 유명한 혹은 존경 받는 사람들을 소개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시간, 공간, 물질, 그리고 (진화론) 문화를 초월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라는 찬사를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성경을 무

대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이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진화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가 사실일 수 없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사실이 아닌 것은 진리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진화의 방법을 사용해서 창조를 하지 않으셨을까? 진화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며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떠나, 하나님께서 진화의 과정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수 없는 이유는 대속자 예수님의 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존립에 관한 것이다. 성경은 첫 사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죽음이 왔다고 한다(롬 5:12; 고전15:45). 그러나 진화의 상상이 사실이면 유일한 첫 사람 아담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에 죽음이 왔다는 가장 근본적인 성경의 주장은 헛소리가 되고 만다.

C. S. 루이스는 육체는 사람과 똑 같지만 영혼이 없는 동물에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부여 넣었는데 그런 인간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고 진화론적인

시한 그들의 논지에는 수많은 과학적 신학적 오류와 허점들이 발견 된다.

콜린스 박사는 "성경에는 직접 목격한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하게 표시하는 곳이 많고, 종교인들은 이런 진실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옳거나 옳아도 아닌 이야기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솔직히 역사적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썩썩한 구석이 많다"라고 썼다. 그의 논지는 성경과 진화론을 짜깁기 한 것으로 허점들 투성이다. 그는 C.S. 루이스에게 큰 영향을 받아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가 된 -과학계에서 큰 업적을 이루었지만-아직은 신앙의 대가가 아니다.

사람의 생각은 오류가 없는 성경을 넘을 수 없다. 반대로 성경을 무시하면 바른 설명이 나올 수 없다. 성경과 다른 지식을 믿으면 결국 개인과 교회가 망하게 된다. 오류가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걸어 심판에 이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성경에 믿음을 거는 현명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전1:25).

▲이메일: mailforwochoi@gmail.com

# 성품칼럼 (33)



**이영숙 박사**  
(종교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 성품리더십(1)-공감의 리더십

리더십은 국어사전에서 의하면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 단어로는 간단히 '통솔력'이라고도 말하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훌륭한 리더십에 대해 결단력, 단호함, 추진력 등 강력한 이미지와 힘을 소유한 리더를 연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감성의 시대, 다양화 시대, 개성의 시대, 하이테크 (High Tech)시대가 만개하면서 사람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 하이터치 (High Touch)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성품리더십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품 좋은 사람들은 저절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영향력인데 사람들은 좋은 성품의 사람들을 따라하고 함께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절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성품으로 빛어지는 리더십의 영향력은 다른 무엇보다도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두 지도자를 비교해봅시다. 한 사람은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어머니를 여의고 다섯 살 때부터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새어머니로부터 온갖 학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굳혔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신처럼 불행한 시절을 보내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소년은 교육자로 성장하여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교육기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계최초의 유아교육기관을 설립한 프리벨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받은 학대와 상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극복하여 불우한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프리벨처럼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유대인 아버지로부터 심한 매질을 당하면서 증오심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는 나치의 지도자가 되어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을 대학살로 분출시키고 말았습니다. 바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은 동일했지만 성품의 차이가 부른 영향력은 극단적인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성품리더십이란 '한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다른 사람과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해주고, 성공적인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성품 좋은 지도자는 자신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며, 그들이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시키지요. 그래서 성품 좋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세상을 행복하게 바꾸는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결국 성품리더십을 소유한 지도자가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 평화로운 세상,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성품리더십을 발휘하여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할길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공감인지능력(Empathy)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공감인지능력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능력으로, 정서적인 갈등을 피하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성품덕목입니다. 공감의 리더십은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경청, 긍정적인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종의 성품을 통해 발휘되지요. 자, 그러면 공감의 리더십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요? 자녀에게 공감인지능력을 가르치려면, 부모가 먼저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부모의 공감하는 모습은 자녀에게 공감인지능력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지요. 자녀의 감정을 수용해 주고 조절해 주는 부모 밑에서 아이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스트레스가 적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안내

<p><b>남부한인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송성철</p> <p>주일 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목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후 11:00</p> <p>Tel: (704) 491-0821, Fax: (704) 491-0825 2819 Midway Rd., Charlotte, NC 28217</p>	<p><b>덴버한인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유</p> <p>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9:30 목요예배: 오후 7:00</p> <p>Tel: (303) 422-8858, Fax: (303) 422-88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p>	<p><b>풍고메이교회</b></p> <p>담임목사: 최계근</p> <p>주일 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전 11:00 목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8:00 세례학교: 오후 8:00</p> <p>Tel: (910) 222-0291, 227-271-7777 Fax: (910) 222-0298 3280 Moore Rd., Lenoir, NC 28648</p>	<p><b>벅스카운티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종운</p> <p>주일 예배: 오전 8:00(7:45) 주일학교: 오전 10:15(9:45) 수요예배: 오전 11:30(10:45) 목요예배: 오후 8:00</p> <p>Tel: (410) 491-1932, Fax: (410) 491-2682 1550 Woodrow Ave., Lutherville, MD 21087</p>	<p><b>멜빌교회</b></p> <p>담임목사: 권승배</p> <p>주일 예배: 오전 7:00 주일학교: 오전 8:15 수요예배: 오전 11:30 목요예배: 오전 8:00 세례기도: 오후 7:00 세례학교: 오후 8:00 세례학교: 오후 8:00(일-부)</p> <p>Tel: (410) 491-1235, Fax: (410) 491-8922 2165 St. Jame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b>보스턴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권택영</p> <p>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8:00 목요예배: 오전 11:45 세례기도: 오후 8:00 세례학교: 오후 8:00(일-부)</p> <p>Tel: (603) 429-4678, Fax: (603) 429-4487 2 Main St., Nashua, NH 03064</p>	<p><b>폴티모어교회</b></p> <p>담임목사: 이영철</p> <p>주일 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00 수요예배: 오전 11:30 목요예배: 오후 12:15</p> <p>Tel: (410) 337-8448, 337-8161, Fax: 337-8448 1600 Sandberg Ave., Hunt Lutherville, MD 21086</p>
<p><b>샬럿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나성균</p> <p>주일 예배: 새벽 8:00 주일학교: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목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11:00 세례학교: 오전 11:00</p> <p>Tel: (704) 379-0805 / (980) 665-8888 791 Scajars Rd., Charlotte, NC 28219</p>	<p><b>새시온침례교회</b></p> <p>담임목사: 장용교</p> <p>주일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0:00(9:00) 수요예배: 오전 11:30 목요예배: 오후 7:00</p> <p>Tel: (305) 452-6781 6747 Pacific Ave., Ft. Rucker, FL 32088</p>	<p><b>사이클링강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박은일</p> <p>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11:15 수요예배: 오전 7:30 세례기도: 오후 8:00(일-부) 목요예배: 오전 8:30</p> <p>Tel: (910) 227-0281, Fax: (910) 227-1725 4614 N. 10th St., Seaside, NC 28582</p>	<p><b>알칸사 제자들교회</b></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 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목요예배: 오후 8:00 세례학교: 오전 8:30(일-부)</p> <p>Tel: (501) 870-9648, 818, Fax: (501) 875-2179 805 Kirby Ave., Little Rock, AR 72211 www.ark.org</p>	<p><b>앵커리지델린교회</b></p> <p>담임목사: 유계림</p> <p>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1:00 목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 오후 7:00</p> <p>Tel: (202) 344-6445, Fax: (202) 344-6187 8230 Inwood St., Annapolis, MD 21404</p>	<p><b>앨파스델린교회</b></p> <p>담임목사: 화계수</p> <p>주일 예배: 오전 9:00(8:45) 주일학교: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p> <p>Tel: (202) 317-5625, 317-5626, 317-5627 3418 7th Ave., Ft. Pass, TX 75840</p>	<p><b>영성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이윤권</p> <p>주일 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8:30 수요예배: 오전 12:00 목요예배: 오후 7:30 세례학교: 오후 8:00 목요예배: 오후 8:00</p> <p>Tel: (714) 942-0288, Fax: (714) 942-8027 718 Hiner Rd., Redland, CA 94044</p>
<p><b>온누리교회</b></p> <p>담임목사: 김성환</p> <p>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목요예배: 오후 8:00</p> <p>Tel: (254) 834-6703, (254) 834-4927 458 W. 8th St., Waco, TX 76747</p>	<p><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p> <p>담임목사: 한재영</p> <p>주일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전 11:30(10:45) 목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8:00(일-부)</p> <p>www.wmcc.org Tel: (703) 461-4467, Fax: (703) 461-4448 4913 Meridian St., Alexandria, VA 22304</p>	<p><b>주예수교회</b></p> <p>담임목사: 배현창</p> <p>주일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전 11:00 목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8:00(일-부)</p> <p>www.wycc.org Tel: (804) 296-7925, Fax: (804) 296-7554 10231 Robson Rd., Richmond, VA 23235</p>	<p><b>큰무리교회</b></p> <p>담임목사: 나병삼</p> <p>주일 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1:30 목요예배: 오전 8:30 세례학교: 오후 8:30(일-부)</p> <p>www.kmcc.org Tel: (202) 344-6445, Fax: (202) 344-6187 8230 Inwood St., Annapolis, MD 21404</p>	<p><b>타코마 삼일교회</b></p> <p>담임목사: 정계근</p> <p>주일 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수요예배: 오전 11:30 목요예배: 오전 8:00 세례기도: 새벽 5:30(일-부) 세례학교: 오후 8:00(일-부)</p> <p>Tel: (253) 669-1098 7481 E. Verde St., Tacoma, WA 98408</p>	<p><b>타코마사생명교회</b></p> <p>담임목사: 임규영</p> <p>주일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전 11:30(10:45) 목요예배: 오후 7:00(6:00)</p> <p>Tel: (253) 425-0217, 4217-0424 Fax: (253) 425-1422 6702 E. B St., Tacoma, WA 98448</p>	<p><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수영</p> <p>14월 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30 목요예배: 오후 7:00 세례학교: 오후 8:00(일-부)</p> <p>Tel: (253) 849-8675, Fax: (253) 849-8675 8424 E. Tatum Ave., Tacoma, WA 98444</p>
<p><b>험퍼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윤경용</p> <p>주일 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9:30(9:45) 수요예배: 오전 10:30 목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11:00(일-부) 세례학교: 오후 8:00(일-부)</p> <p>www.hpcoc.org Tel: (480) 728-0195, Fax: (480) 667-2627 1160 E. Gibson Rd., Chandler, AZ 85226</p>	<p><b>허트포드제임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철만</p> <p>주일 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전 12:00 목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후 8:00 세례학교: 오후 8:00(일-부)</p> <p>Tel: (603) 649-4731, Fax: (603) 674-8666 359 Chapel Road, Nashua, NH 03064</p>	<p style="text-align: center;"><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b></p> <p style="text-align: center;"><b>하와이지역</b></p> <p>담임목사: 이남수</p> <p>주일 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목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 오전 8:30(일-부)</p> <p>Tel: (808) 735-0911 1335-A Pallo Ave., Honolulu, HI 96818</p>	<p><b>에덴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송정현</p> <p>주일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목요예배: 오후 7:00(일-부)</p> <p>Tel: (803) 729-1004, Fax: (803) 216-6822 1163 5th Ave., Greenville, SC 29615</p>	<p><b>하와이 한국교회</b></p> <p>담임목사: 김순곤</p> <p>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6:00(일-부)</p> <p>Tel: (808) 277-2536, 267-1778, 262-2822 1357 E. Buntala St., Hilo, HI 96714</p>	<p><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조원규</p> <p>주일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9:30(9:45) 수요예배: 오전 11:30(10:45) 목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 오후 7:00</p> <p>Tel: (808) 947-8262, Fax: (808) 947-8497 2122 Wilcox St., Honolulu, HI 96822</p>	



#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운다”

## MTS '4차원의 영성' 리더십 세미나

Ministry Training School(MTS) 컨퍼런스 및 4차원 영성 리더십 세미나가 11일부터 13일까지 나성서 부교회(담임 이정현 목사)에서 개최됐다.

미주기독교총연합회 주최, 남가주교협, OC교협, 남가주목사회 등이 공동 후원으로 연 MTS 컨퍼런스는 '평신도를 목회자' 같은 사역자로 세우는 '평신도 사역자 훈련프로그램'으로, 정도량 목사(MTS 전문강사), 정우성 목사(남가주광명교회 담임 및 4차원영성 전문강사), 이정현 목사(나성서부교회 담임), 김기현 목사(LA사랑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나교회 담임) 등이 강사로 나섰다.

또한 개강설교자로 송정명 목사(미주평안교회 담임), 폐강예배 설교자로 변영익 목사(벨렐장로교회 담임), 둘째 날 설교자로 김영대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장), 수요일 설교자로 엄영민 목사(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담임)가 나서 설교했다.

첫날 4차원 영성 세미나 강사로 나선 정우성 목사(남가주광명교회 담임)는 교회성장연구소에서 펴낸 '4차원의 영성학교'란 교재를 사용하면서 강의했다. 그는 "4차원 영성이란 4차원의 세계를 움직이는 생각, 믿음, 꿈, 말이라는 4가지 요소를 잘 다스리고 훈련하는 영성"이라며 "4차원에 속한 하나님이 3차원의 세계에 역사하시는 통로인 인간의 생각, 믿음, 꿈, 말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정 목사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준다. 오직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과 교통하시며 일을 하신다. 성도의 삶은 첫째도 믿음, 둘



MTS 4차원의 영성 리더십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정우성 목사가 강의하고있다

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위에서 이뤄져야 본질이다"고 말했다. 이어 "4차원 영성"은 "4차원 영성의 출발이 믿음이다"고 말했다.

### ‘조용한 탈출’...2세에 비전심기 시급

#### 제4회 이민신학심포지엄, ‘개혁세대와...’ 주제



제4회 이민신학 심포지엄이 나성영락교회 EM채플에서 열렸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날 개혁세대 및 현재세대 등을 대상으로 열린 트랙강의에 발제자로 참가 중인 오상철 박사, 박희민 목사, 박영배 목사, 김영대 목사, 이상명 총장, 이석부 목사, 김영주 교수

제4회 이민신학심포지엄이 '개혁세대와 함께하는 차세대 목회' 주제로 18일 오전 10시 나성영락교회 EM채플에서 열렸다. 이민신학연구소장 오상철 박사 사회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북미주전국한국교회 실태조사 발표, 주제 강연, 트랙별 발표 및 토론의 시간, 그리고 종합토의와 결론발표로 이어졌다. 이날 북미주전국한국교회 실태조사 발표시간에는 지난 1년 3개월

간 북미주 지역한국교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 공개됐다. 설문조사에서 한국교회에는 '조용한 탈출(silent exodus)'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눈길을 끌었다. 조용한 탈출은 한인 2세들의 이민교회 이탈문제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현상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2세들에게 제대로 된 비전을 심어주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

며 이러한 현상은 이민교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한인 2세 응답자 중 '고등학교 이후 이민교회를 떠난다'고 응답한 한인 2세들이 54.2%로 나타났다. 이어 대학진학 후 교회를 떠나는 2세들도 26.1%에 달했다. 이를 합치면 한인 2세들이 무려 10명 중 8명꼴로 고등학교 이후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평신도가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모습으로 1순위는 '섬기는 태도'로 조사됐다. 그리고 2세 목회자들이 교회 내에서 1세 목회자에게 가장 많이 배우는 모습은 헌신(50.8%) 이내(36.4%) 지도력(28%) 영성(27%) 순이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가 '개혁세대 목회자가 현재 및 차세대 목회자에게라는 제목으로 박영배 목사(나성영락교회)가 '차세대 목회자가 개혁세대 및 현재세대 목회자에게'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 강연을 했으며 박희민 목사, 김영대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장), 이상명 박사(미주신학대 총장), 이석부 목사(세리투스 알테시아 UMC), 김영주 박사(한국장신대학교 학술연구교수) 등이 개혁세대 및 현재세대 대상으로 열린 트랙1강의 발제자로 나서 발표했으며 토론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재세대 및 차세대 대상으로 열린 트랙2강의에서는 박영배 목사, 천세종 박사, 마이클리 목사, 방상용 목사, 유니스 홍 박사, 강우중 전도사가 발제자로 나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제33회 해외합동총회가 해돋는교회에서 열린가운데 총회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 예장미주합동총회 총회장 신상원 목사

#### 제33회 정총, 부총회장 신청기 목사 박재환 장로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총회장 전요한 목사) 제33회 정기총회가 12일 오전 10시 해돋는교회(담임 정갑식 목사)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총회'(행9:31)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총회장에 신상원 목사(빌립보교회 담임), 부총회장에 신청기 목사(말갈삼밭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개회예배는 부총회장 신상원 목사의 사회로 시작, 회록서기 안경찬 목사가 기도를, 부서기 김광석 목사가 성경봉독을, 김진웅 목사가 특송을 했다. 이어 전요한 총회장이 '나도 너도 변화야 삼나' (롬8:5-11)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복음 안에 바로써서 목회하는 자, 속사람이 변화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며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영광스럽고 복된 자

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자"라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문광현 직전총회장의 축도로 마쳤으며 흥명철 증경총회장의 집례로 성찬예식을 갖고 정갑식 증경총회장이 성찬예식의 축도를 했다.

이후 열린 총회에서 신상원 부총회장을 총회장으로, 신청기 목사를 부총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는 회의순서와 총회법 개정 등에 대해 진통을 겪어 회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제34회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신상원 목사(빌립보교회) △부총회장: 신청기 목사(말갈삼밭교회), 장로부총회장: 박재환 장로(U&M장로교회) △서기: 최순길 목사(LA임마누엘교회) △회계: 지윤성 목사(안디옥장로교회). (박준호 기자)



다문화 음악축제 행사를 마치고 출연한 찬양대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지역사회와 함께 “하나님 찬양”

#### 주예수교회, 제7회 “다문화 음악축제”

리치몬드 소재 주예수교회(담임 배현찬 목사)가 아버지날인 지난 17일 지역사회 6개 교회와 주민을 초청하는 제 7회 "다문화 음악축제"를 열었다. 흑인교회, 백인교회, 히스패닉교회, 아시아교회 등 약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인종 고유의 문화가 배어있는 찬양을 통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축제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배현찬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클락(Shady Clark Jr.) 목사(이스트민스터장로교회)의 기도 후 사우스민스터장로교회 성가대의 격조 있는 아름다운 성가, 이스트민스터장로교회 성가대의 흑인 특유의 영감있는 찬양, 그리고 메시아 크리스천교회 찬양팀의 수준 높은 CCM 찬양, 히스패닉순복음교회 리빙위어의 남미풍의 열정적 찬양, 그

리고 마지막으로 주예수교회 성가대의 한국 가락을 따라 부른 경쾌하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어우러진 음악의 향연을 벌였다.

마지막 피날레에는 각 교회 성가대와 찬양팀 80여명이 함께 '위대하신 주'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 후 윌슨(Willie Woodson) 목사(퍼스트유나이티드장로교회)의 축도와 평화의 나눔을 통해 인종과 교단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는 찬양의 하모니를 이루었다.

이날 주예수교회 유소년 사물놀이 팀이 '아리랑'을 공연했으며 참석교회들 중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행사를 마친 후의 민찬은 한국 전통 음식들로 준비했다. 사우스민스터교회 뮤직디렉터 데이비 맥니어 장로는 "행사가 해마다 발전된다"며 "이 같은 나눔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감사편지를 보냈다. (정리: 유원정 기자)



결혼예비학교 강사들을 세미나에서 금병달, 김경진 강사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는 참석자들

### “자존감 회복, 하나님 만나야”

#### FBM주최 결혼예비학교 강사스쿨 세미나

FBM(가정을세우는사람들)이 주최한 '결혼예비학교 강사스쿨' 세미나가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주두란노서원에서 개최됐다. 제 1강 '가정사역개관', 2강 '무엇이 문제인가?' (순기능, 역기능가정), 3강 '남성성 여성성의 회복', 4강 '배우자 선택, 아름다운 만남으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금병달 목사와 김경진 사모가 함께 단에 올라 진행했다. 두 강사는 제 2강에서 '순기능과

역기능 가정'을 설명하며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겪는 여러 가지 영향을 제시하고 자존감 회복을 위한 3가지를 제안했다.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는 긍정적 자아가 형성돼야 하고 영혼의 아버지를 바로 알아야하며 재양육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긍정적 자아형성을 위한 3가지 요소는 소속감을 분명히 하고 가치관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것이며 새로운 태닝포인트는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며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가

능성이 열림을 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제시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 53:2에 나타난 것처럼 흠모할 것도 없고 마른 땅의 줄기같이 외소하며 풍채도 없었고 멸시를 당했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분명했다"며 "새로운 가족개념의 터득과 자기 대화(Self Talk), 믿음의 액션과 사람들의 교제를 통한 섬김으로 재양육의 과정을 거쳐 회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후 시간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회복을 위한 강의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 성적 정체성의 회복에 대한 강의와 함께 자신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테스트에 관한 소개도 곁들였다. 경건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들이 또 다른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금병달 목사 김경진 사모는 결혼/이성교제, 부부성장학교, 자녀양육세미나, 싱글부모를 위한 세미나, 치유상담학교, 대화학교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커널대학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www.family4family.com 에서 볼 수 있다. (이성자 기자)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b> <b>동부(NY, NJ) 교회안내</b>		<b>기쁨과 영광교회</b> 담임목사: 권희수 주일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9:30 유아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후 6:00(월-토)		<b>낙원장로교회</b> 담임목사: 황영천 주일예배: 오전 8:45 주일학교: 오전 11:00 유아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 오후 6:00 성모기도: 오후 8:45		
<b>뉴욕갯마을교회</b>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유아예배: 오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후 5:30 목회기도: 오후 8:00	<b>뉴욕중앙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유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회기도: 오후 8:45	<b>뉴욕빌라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계현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유아예배: 오후 2:0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회기도: 오후 8:00(월-토)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유아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회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후 6:00	<b>뉴욕순복음안타독교회</b>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8:30 유아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11:30 목회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후 5:30(월-토)	<b>뉴욕중부교회</b> 담임목사: 김계열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9:30 유아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회기도: 오전 8:45(월-토)	<b>뉴욕주교교회</b>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유아예배: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회기도: 오후 8:00(월-토)
<b>뉴욕요신장로교회</b>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락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8:30 3부예배: 오전 10:15 4부예배: 오전 12:00 5부예배: 오전 1:30 6부예배: 오후 3:00 7부예배: 오후 7:30 목회기도: 오후 8:00(월-토)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2:00 유아예배: 오전 10:00(월-토) 목회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후 8:45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30 유아예배: 오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회기도: 오후 8:00	<b>풍아일렌드성경교회</b> 담임목사: 김혁명 주일예배: 오전 11:30 유아예배: 오전 9:45 수요일예배: 오후 8:30 목회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후 6:00	<b>메디니교회</b> 담임목사: 장중환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8:30 유아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11:30 목회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후 6:25 (월-토)	<b>어린이교회</b> 담임목사: 김수백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30 유아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회기도: 오후 8:00	<b>유니온연합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계열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0:45 3부예배: 오전 12:45 목회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후 8:00
<b>주미전교회</b>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 오후 6:00 목회기도: 오후 7:00	<b>주신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용익 주일예배: 오전 12:00 주일학교: 오후 2:00 유아예배: 오전 10:30 목회기도: 오후 8:00	<b>중부뉴저지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후 1:00 주일학교: 오후 2:00 유아예배: 오후 5:15 목회기도: 오후 6:00	<b>윈스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유아예배: 오후 2:00	<b>윈스한인교회</b> 담임목사: 이규철 주일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유아예배: 오전 11:30 목회기도: 오후 1:00	<b>한마음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미림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유아예배: 오전 11:30 목회기도: 오후 8:00(월-토)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합 후천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955-0099 ■ N.Y.: Tel. (718)958-1620 Fax. (718)958-0074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b> <b>남미지역</b>	<b>브라질 서울교회</b>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2:00 목회기도: 오후 8:45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회기도: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회기도: 오후 8:45	<b>브라질 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회기도: 오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회기도: 오후 7:00	<b>아르헨티나 제임교회</b> 담임목사: 최경민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30 목회기도: 오후 8:00 목회기도: 오후 12:30	<b>칠레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황학상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7:00 목회기도: 오후 6:00 목회기도: 오후 7:45 목회기도: 오후 8:00 목회기도: 오후 8:00	<b>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b> 선교사: 임현관 목사 비리니안교회 회장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목회기도: 오후 8:00 목회기도: 오후 8:00 목회기도: 오후 8:00



# 동부교계 기사판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가 2012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대학부/신학과, 선교학과 △대학원/목회학,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여교역학과이며 입학원서, 목사추천서,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신앙고백서, 명함판 사진 등이 필요하다. 원서마감은 9월 7일(금) 오후 6시.

▲문의: (718)463-7163, (646)717-2733

##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 사무총장 청빙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가 사무총장을 청빙한다. 자격은 미국장로교 소속교회나 산하기관에서 5년 이상 섬기고 미국에서 3년 이상 교육받고 학위취득한 이중언어자이며 영주권/시민권자. 본 교단 PIF, 한영 이력서, 소견 및 신앙고백서, 사진, 추천서 2통이 필요하다. 서류마감은 7월31일까지이며 제출처는 124 Scarlet Oak Lane, Paramus, NJ 07652

▲문의: (201)843-2222

## 퀸즈장로교회 2012년도 전교인 여름수련회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2012년도 전교인 여름수련회가 7월 8일(주)부터 11일(수)까지 Hudson Valley Resort 에서 열린다. 강사는 나하수 목사(광주 겨자씨교회 담임).

▲문의: (718)886-4400

## 뉴욕기독교TV 특별모금 생방송

뉴욕기독교TV(KCTS부회장 박용기 장로, 사장 신 용)는 6월 30일(토)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6시간동안 KCTS 2012 특별모금 생방송을 진행한다.

▲문의: (718)224-8533-4

## 리빙스톤교회 여름성경학교

리빙스톤교회(담임 유상열 목사)가 7월 8일부터 4주간에 걸쳐 매 주 일 오후 12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여름성경학교를 갖는다. 대상은 유 초중고등부 모두이며 예배와 성경공부, 찬양, 영상물 관람, 게임, 아트 크 라프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문의: (718)578-0158

# “받은 은혜로 선교비전 세우기”

## 2012 뉴저지호산나전도대회 “회복 그리고 비전”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유재 도 목사)가 주최한 제 24회 호산나



호산나전도대회가 필그림교회에서 열렸다

전도대회가 지난 15일부터 3일간 뉴저지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에서 열렸다. “회복 그리고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 강사는 장순복 목사(원주 드림교회 담임,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상임회장, 합동총회부흥사회 증경회장, 한기부 실무회장)로 3일간의 성회를 마친 뒤 3일간의 선교컨퍼런스가 계속 열렸다.

회장 유재도牧사는 개막 인사를 통해 “귀한 강사 목사를 통해 성령을 부여하시고 삶속에서 회복을 일으

키고 비전을 세울 줄 믿는다. 이번 에 모험을 시작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선교 비전을 체계적으로 세우기 위해 공부하고 결단하는 선교컨퍼런스를 한다. 총 6일간의 집회를 통해 뉴저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믿는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했다.

장순복 목사는 첫날 성도들에게 ‘성공을 장악하라’(눅5:1-11)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신앙의 핵심을 잃어 버리고 세속화되고 있는 이민교회의 현실을 꼬집으면서 완전한 내려놓음을 통한 헌신을 당부했다.

(유원정 기자)



무지개의집 창립기념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무지개의집 설립19주년 감사예배

무지개의집(이사장 방은숙, 사무총장 김은경)이 설립 19주년을 맞아 지난 14일 감사 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퀸즈중앙장로교회(안창의 목사) 본당에서, 파크장에서는 바자회도 겸해 열렸다.

1부 예배는 백두위십 이종길 간사 찬양인도에 이어 김은주 목사의 사회로, 대표기도 조원태 목사, 성경봉독 임선순 목사, 특송 무지개의 집 이사 및 스태프, 설교 김종훈 목사, 헌금기도 김일국 목사, 축도 안창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만찬은 영종원 공동행사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돼 뉴욕한인목사회 부회장 최예식 목사, 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회장 김금옥 목사, 뉴욕어린양교회 김수태 목사가 각각 권면했으며 피터구 시의원 등 정치인들 축사, 김은경 사무총장 연간보

고, 방은숙 이사장 시상, 장은경 사모(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장소를 제공한 안창의 목사에게 나눔상을, 노성천 이정현 씨에게 봉사상을 시상했다.

한인 이민사회에서 국제결혼, 가정폭력 등으로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돕고자 시작된 무지개의 집 김은경 사무총장은 “올해 기금모금 만찬으로 하지 않고 감사예배를 드리는 것은 첫 시작과 성장의 밑거름에는 한인 교회들의 도움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목회자님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취지”라며 무지개의집을 위해 계속 기도와 후원을 당부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원로성직자회 초청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기쁨, 사랑, 감사로 평강 누리세요”

15일 뉴욕순복음연합교회, 뉴욕원로성직자회 초청예배

뉴욕원로성직자회(회장 김 전 목사)가 지난 15일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초청예배를 드렸다.

1부 예배는 신성능 목사 인도로 기도 이강덕 목사, 특송 김봉규 목사, 말씀 양승호 목사, 축도 정규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양승호 목사는 “기쁨이 축복입니다”(빌4:4-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인간의 의는 오래가지 못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했도 두는 남을 비난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회복돼야 한다”고 말하고 “뉴욕교계를 오래 동안 지켜 오신 어르신들께 평강의

축복을 빌어드리고 싶다”며 “평강은 첫째,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둘째, 사랑과 셋째, 감사로 인해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2부는 김 전 목사 사회로 찬양의 시간을 가졌다. 색소폰 솔로에 유상열 목사, 특송은 김봉규 목사가 맡아 회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회장 김 전 목사는 초청해주 뉴욕순복음연합교회에 감사하며 “원로성직자회에서 실버처치를 설립(6월 17일 설립예배)하고 구자본 목사를 서기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임원한 한문수 목사를 위해 기도를 부탁했다.

(유원정 기자)

## “책임감 갖고 더욱 분발” 다짐

### 필라기독교방송국 개국16주년 감사예배

필라델피아기독교방송(사장 전영현 목사)은 지난 14일 오후 8시 벤 엘장로교회(담임 안재도 목사)에서 개국 16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다. 전영현 사장은 “원근 각지에서 오셔서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국의 정식 인가를 받은 방송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변함없이 후원과 기도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여러분 사랑에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날 7시 만찬 후 8시부터 시작된 감사예배는 전영현목사 사회로 차형원 장로(필라장로회 회장)의 대표기도, 민영선 목사(방송운영이사)가 성경봉독, 필라세퍼드파이어(지휘 최경덕) 찬양에 이어 이용걸 목사(영생장로교회 담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시40: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윅걸 목사는 “우리 모두의 삶도 굴곡이 많았지만 여기까지 온 것이나, 필라기독교방송이 오늘 16주년을 맞이한 것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자”고 전했다.

박요셉 셰퍼드파이어 단장의 헌금 찬양, 김낙열 장로(필라장로회 전 회장) 헌금기도에 이어 이대우 목사(필라교회)와 안병민 사장(한국일보)의 축사, 조 준 전도사를 비롯해 후원이사, 천사회원에게 감사패 및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강승호 목사(운영이사)가 각 교회에서 파송된 운영이사(민영선, 최해근, 이대우, 사장석, 신해균, 이견상 백홍기)소개에 이어 김선훈 방송실장이 광고했다. 동 방송은 아이폰을 통해 세계 어디서나 청취할 수 있다.

(기사제공: 필라기독교방송)

## “하나님나라의 훌륭한 일꾼 되라”

NJUCA 제 6회 졸업식 한인8명 등 총25명 졸업



제 6회 졸업식 모습

뉴저지유나이티드크리스천아카데미(NJUCA, 교장 Dawn Fossnes, Donna Toress) 제 6회 졸업식이 지

난 14일 오후 6시 뉴저지 중부 해밀턴스퀘어에서 열려 한인 8명, 미국인 17명 등 총 25명의 졸업생을 배

출했다.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학부모와 친지, 학교 관계자들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졸업식은 운스(Woods) 목사의 개회기도, 에밀리(Emily Faith Hart)의 졸업 소감, 수석졸업자 테일러(Taylor Alexandra Lee)양의 졸업연설 그리고 졸업생 자넷김의 “You raise me up” 축송, 축사 그리고 졸업장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사장 신정하 박사는 졸업생들의 노력과 교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돼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Dawn Fossnes 교장의 폐회선언이 있자 25명의 졸업생들

은 일제히 사각모를 하늘로 던지며 졸업을 자축했다.

올해 개교 8년을 맞은 NJUCA는 기독교 영성을 중심으로 교수정예의 기독교 리더교육에 전례해 25명의 졸업생들 중 24명이 대학에 진학했으며 이중 한국인 정원호, 정하민 졸업생이 명문 아메리칸대학교에 전액장학생으로 입학했다.

NJUCA는 2014년 개교 10주년을 준비하면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명문 기독교 국제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재단, 학교후원회(Friends of NJUCA) 그리고 모든 교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기사제공: NJUCA)

www.sbm.or.kr

크리스천이 이대로 살아가는 안됩니다. SBM이 처방을 제시합니다.

SBM총재 황 의 영 박사

SBM의 3대 목표

1. 말씀의 신앙화 From Scripture to Faith
2. 신앙의 생활화 From Faith to Innovated Life
3. 생활의 문화화 From Innovated Life to Cultural Impact

S.B.M. 기독교 생활개혁신동본부 THE HEADQUARTERS OF SON BAL MOVEMENT

서울(02)564-3191, Fax. (02)564-6933 E-mail : sbm01@hot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를 지향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폰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전채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수 있으며 미주내 동배된 교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신문보내기 후원을 통해 귀한 선교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 및 구성

- 전체뉴스
- 칼럼
-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치를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노우고라 스타가비 뉴욕고향 스타가비

New York Kom Tang

24시간 오픈

교포사회의 등대 주일은 쉽니다

전화번호: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947-8482  
뉴저지: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0 Tel. 201-348-0201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Yoo 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 · 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6-9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NY Christian Guest House

뉴욕선교사의집

www.nycgh.org

5대양 6대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sunnyusany@yahoo.com  
35-74 162 St. Flushing NY 11358

347.732.9459



# 개인부터 국가까지 '거룩 운동' 전개

## 뉴스피릿무브먼트 제2차 포럼, 접목 방안 토론

뉴스피릿무브먼트(NEW SPIRIT MOVEMENT) 이하 NSM. 상임대표 박용덕 목사) 제2차 포럼이 지난 12일 오전 남가주내리교회에서 개최돼 거룩성 운동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날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부각되는 영적, 도덕적, 윤리적 타락과 사회 문화 정지의 혼돈, 교육의 부재 등 심각하게 타락돼가는

현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고자 시작된 NSM의 두 번째 포럼은 박용덕 목사의 개요 설명으로 시작됐다.

이어 이득환 목사(요한웨슬리와 거룩한 운동), 지은병 목사(정교도 신앙과 거룩성 운동), 이윤수 목사(한국교회와 거룩한 운동)가 주제 발표를 한 후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의 시간을 갖고 "어떻게 거룩성 운동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국가에 접목할 것인지"에 관해 토론했다.

이날 박용덕 목사는 "정교도들과 한국교회의 초기 지도자들은 물론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칼빈이나 웨슬리도 종교개혁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개혁과 국가개혁 나아가 세계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실천했다. 오늘날 개혁자들의 후손으로

자처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실제로는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사상을 외면했고, 그러는 동안 이 미국 땅과 세계는 견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됐다"고 강조하며 "교회와 교계와 목회자들이 잡에서 깨어나 의의 목소리, 거룩의 목소리를 높여 외쳐야 할 것"을 역설했다.

한편 NSM은 8월 20일-21일 담임목회자 50명을 초청해 컨퍼런스를 가질 예정이며 11월 12일과 13일은 차세대 지도자인 EM 사역자 50명을 초청해 영어 컨퍼런스를 가질 계획이다. 자세한 문은 (714)401-9874로 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박용덕 목사의 개요 설명으로 뉴스피릿무브먼트 포럼이 시작되었다



국제신학교(ITS)주최 여름집중강의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인도하고 있는 이필찬 목사

## 국제신학교한국어부 여름집중강의 강사 이필찬 목사, 성기문 목사

국제신학교(ITS, 총장 맬 룩스 박사)는 한국어부 여름집중강의를 11일부터 23일까지 나성남포교회(담임 한성운 목사)에서 열었다.

요한계시록의 권위자인 이필찬 목사(전 한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교수)는 13일 오전에 열린 세 번

째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는 말세 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지만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것이 마치 말세의 징조로 오해하는 해석들이 있다. 베리초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시록을 접근해서 나온 해석이지만 복음을 왜곡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라고 지적했다.

이목사는 "계시록 7장의 14만4천의 배경은 민수기 1장, 2장을 시사한다. 14만4천은 하나님의 군대이다. 그 군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수하신 것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지상에서 전투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가진다. 특히 1천은 군대조직이며 각 지파마다 12개의 군단이 있는 것이다. 14만4천이라는 것은 각 지파에 할당된 숫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가져오며, 교회공동체가 매우 특수한 무리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14만4천을 설명할 때 유다 지파에서부터 설명한 것은 그것이 메시야적공동체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목사는 "본문 13-14절에 나오는 큰 환난은 절대로 7년 대한민국이 아니다. 환난은 이 세상을 특징짓는 단어이다. 이 세상이 심판 아래 있다. 이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강의는 ITS 학생들 외에도 남가주지역 각 교회 사역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18일부터 22일까지는 성기문 목사(두란노바이블칼리지 교수)가 '핵심 주제로 보는 레위기' 강의를 했다.

(박준호 기자)



살롬 장애인선교회 창립 13주년 기념 및 헌당감사예배가 성황리에 열렸다

## 살롬장애인선교회 창립기념 및 헌당감사예배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 2869 W. Pico Bl., LA CA 90006)는 창립13주년 기념 및 헌당감사예배를 지난 7일 저녁 7시 성황리에 개최했다.

GGM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박모세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감사예배는 김세환 목사(LA연합감리교회)가 기도, 선한목자장로교회 여성중앙단이 특송을,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가 '건축 후에 백성들이 청한 일'(느 8:1-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김문일 목사(LA남서울은혜교회)와 손병렬 목사(남가주동신교회)의 축사, 유기환 목사(버뱅크한인장로교회)의 축도로 진행됐다.

1999년 6월 박모세 목사 가정에서 4명의 가족들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살롬선교회는 그해 9월 1차 사랑의 휠체어 49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휠체어 7천 500여대, 의료기구 3만점 등 약 3만7천여 점을 한국을 비롯 북한, 중국 등지의 장애인들에게 보내고 있다.

▲연락처 (323)731-7724 (박준호기자)



갈릴리신학교 졸업식을 마친후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 갈릴리신학대학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총20명 졸업, 일본인 2명 포함 눈길끌어

갈릴리신학대학 대학원(총장 김재울 박사) 2012학년도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16일 오전 11시 본교 배비라 톱키스 오디오리움에서 개최돼 20명의 학위수여자를 배출했다.

김재울 총장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 학위수여식은 김성구 장로(나성소망교회)가 기도, 백철 목회학 박사원장이 '이용도의 교회와 목사 개혁론'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김재울 총장이 환영사 및 학교 소개를 했다. 이어 피터김 교무처장이 학사보고, 백철 교수와 김재울 총장이 학위수여, 손지영 목사의 축

가, 이시곤 총장(아가페대학)이 축사, 졸업생 대표 김미경 석사가 감사, 백철 교수가 축도했다.

이날 총 20명의 학위수여자 중 두명의 일본인 졸업생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이날 학위수여를 받은 졸업생 명단.

△신학석사: 카츠키 히라키, 카츠키 유카, 정윤성, 유태승, 신보람, 김충구 △목회학석사: 이도화, 전미영, 방미라, 윤민숙, 신진경, 김미경, 김형준, 조학준, 안경성, 윤민숙, 이윤정, 문조희, 이순봉, 황영진.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베델건축학교 수강생 모집

선교지는 물론 가정과 직장에서도 꼭 필요한 핸디맨 양성을 위한 수강생을 모집한다. 30년 실무 경험과 현재 컨트랙터로 재직 중인 배기문 전 도사가 강사로 서며 수강료는 없다. 6월 24일(주) 오후 3시 첫 모임을 갖고 8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강의 내용은 건축도면 보는 법, 플러밍 응급 조치와 수리, 전기시설 설치 및 수리, 가정에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강의한다. 강의 장소는 미주벨엔교회(담임 정요한 목사).

▲문의: (213)422-9191

## 담임목사 청빙

텍사스 주 휴스턴 한인타운 중심부에 위치한 새누리침례교회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성격적이고 복음적인 보수신앙을 가진 남침례교단 소속 혹은 가입이 가능한 자로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한(M.Div학위 이상 소지자) 목회경력 5년 이상, 이중언어가 자유롭고 미국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학위증명서, 목사안수증명서, 최근설교 CD 혹은 DVD 2회분, 본인 및 가족사진 1매, 목 계획 및 비전에 대한 소견, 추천서2통 등을 7월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 (713)722-0773



베데스다대학교 음악과 주최 '두 제자' 뮤지컬을 마치고 출연진들과 스태프 그리고 교수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뮤지컬 '두 제자' 선교적 측면 접근 15일 베데스다대학교, 20일 나성순복음교회에서

베데스다대학교 음악대학(학과장 조에스터 교수) 뮤지컬과가 주최한 뮤지컬 '두 제자' 공연이 15일 저녁 7시에 본교에서, 그리고 20일 저녁 나성순복음교회 수요예배시간에 열렸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와 가롯 유다의 이야기를 각색해 청중들에게 제자의 길을 선택하도록 권유를 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번 뮤지컬을 연출한 송규식 교수는 "많은 뮤지컬들이 웅장한 스케일과 탄탄한 기획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주고 있다. 이번에 준비한 '두 제자'는 비록 스케일이 크지는 않지만 작품성에서 뒤처지지 않으며 선교적 측면으로 다가가는 자 했다"고 말했다.

뮤지컬에서 베드로 역을 맡은 강

현선 학우(3학년)는 "이번 뮤지컬을 위해 두 달 동안 연습했다. 이번 작품을 통해 저를 비롯한 많은 신자들이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어려움에 빠졌을 때 베드로처럼 가뭄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행동을 하는 연약한 신앙인임을 느끼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요일 저녁 뮤지컬 막이 오르기 전에는 본교 음악과 학생들의 앙상블 콘서트가 열려 김현경 학우의 피아노 연주, 김혜진, 권혜진, 어혜란, 류자연 학우들의 바이올린 풀룻, 하프시코드 합주, 이상우 학우의 독창, 그리고 이혜림 학우의 바이올린 독주가 꾸며졌다.

(박준호 기자)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http://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SAM CARE 섬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에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 목회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 문화음악학과

Toll Free 1-800-281-2123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저가여 명품웨딩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미나, 각종행사

**아르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 L.A., CA 90010

www.laq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8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건너앞)

Tel. 213,487,5446 Cell. 213,683,9101 Email, laquesthouse@live.com

세계를 넘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http://www.chpress.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김은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전용용 필리프스 판매

TOLL FREE: 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빅박스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http://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세계를 넘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http://www.chpress.net)



# ‘시조새과학교과서 퇴출 관심 후끈 교진추 청원으로 삭제 잇달아

지난해 말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교진추·회장 이광원)가 국내 과학교과서에서 ‘시조새’를 빼야 한다고 청원하며 촉발된 진화론 교육 논쟁이 더 가열되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교과서 진화론 개정추진 학술포럼은 ‘진화론·교과서·세계관·교과서를 점령한 신다윈주의’라는 부제가 붙었다. 교진추는 이날 말 “화학진화론은 생명의 기원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3차 청원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화학진화론은 1930년대 구조련의 생화학자 알렉산드르 오파린이 처음 주장한 이론으로, 지구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생물이 탄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진추 측은 국내 교과서에 실린 화학진화론이 실험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실험실에서 이미 노산 혼합물을 가열하는 것을 원시 지구의 환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교진추는 오는 9월 ‘생물계통수는 허구이다’라는 4차 청원을 내고 ‘인류의 진화’ 등에 대해서도 추가 청원을 내 진화론 방향 자체를 부정할 방침이다. 교진추는 ‘진화론 허상 알리기 운동’도 병행한다.

이에 대해 진화론 진영은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시조새’ 삭제에 반대하는 청원을 최근 교과부에 내 맞붙을 놓았다. 시조새 화석만으로 현대 조류의 기원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지금 공룡과 새의 가까운 관계를 풀이하는 근거가 된다는 주장

이다.

과학계의 각종 이슈를 주도해 온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도 11-15일 생물학 관련 과학기술인 회원을 대상으로 ‘과학교과서 시조새 관련 논란 설문조사’를 이메일로 진행했다. 설문은 15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시조새 논란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대응 필요 여부와 추후 대응책 등을 묻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논란이 확산되자 과학교과서 인정 기관인 시교육청, 과학창의재단과 함께 교과서 수정 절차를 보완하기로 했다. 한겨레신문사는 지난 8일 ‘과학까지 넘보려는 기독교 창조론’이란 사설을 통해 기독교 비난에 나섰다.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

의 관련 보도를 인용, 창조론 쪽 청원에 따라 교과서에 진화론 증거들이 삭제되고 수정되는 현실이 지금 국제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150여년 전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한 뒤 과학계에선 진화론이 통설로 자리 잡았다. 특히 시조새는 파충류가 조류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은 발굽이 하나로 변하는 과정을 겪어 대표적인 진화의 상징으로 꼽혀 왔다. 하지만 일부 고등학교 과학교과서에 두 동물이 사라지게 됐다. 교진추가 시조새와 말이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지 못한다며 삭제를 청원했기 때문이다.

교진추 이광원 회장은 “진화론 진영이 진화론의 근거들이 하나둘 삭제되자 기독교계가 창조론을 옹호하기 위해 일을 꾸렸다고 후회하고 있다”며 “오류가 밝혀지면 진화론은 교과서에서 삭제돼야 한다. 이것이 우리 단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연구용역 취소 못하는 이유 불교 탓” 주장 제기

종자연, 학내 종교차별 인권침해 실태조사 착수

[미션라이프]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의 연구용역 취소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불교계의 반발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종자연은 학내 종교차별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소식을 접한 교계는 “불교의 기독교 사찰”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13일 익명을 요청한 인권위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일보가 수차례 종자연의 종교편향성을 문제제기 한 이후 인권위 관계자들이 최근 연구용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장시간 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국 종자연의 연구용역 선정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렸다”고 밝혔다.

# “종자연 연구용역 취소하라”

# 예정합동, 인권위에 촉구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 차별실태 연구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즉 종자연에 맡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종자연은 기독교를 차별하는 기관이라며 연구용역 취소를 촉구했다.

예장 합동총회는 종자연은 친불교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됐었고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사태에 개입해 연구용역을 취소할 경우 불교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게 뻔하고 기독교계의 공격까지 받으면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릴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바에야 차라리 현상황을 유지하면서 연구를 절대 편파적으로 하지 못하게 관리·감독하는 입장을 내놓자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위는 이 문제로 대단히 긴장을 하고 있다”면서 “공정성을 추구해야 할 인권위에 있어 이 사건은 절대 도움이 안 되는 문제”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홍보담당자는 “지난 11일 개최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종자연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멘트 할 게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독교계의 우려에 대해선 충분히 알겠으며, 연구과제가 잘 되고 있는지 수시로 보고받고 검토·관리 하겠다”면서 “이미 종자연이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는 9월 예정된 중간보고에도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종교편향성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다”고 답변했다.

# “종자연 정보공개 못한다”

# 인권위, 국민일보 요구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과 관련된 정보공개 요구를 19일 거부했다. 인권위는 이날 국민일보에 보낸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공정한 연구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며 공개거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민일보는 지난 4일 불교단체인 종자연이 인권위 ‘학내 종교차별 실태조사’를 수주하기 위해 제출했던 ‘종자연 요건 심사 및 평가자료 일체’와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에 응찰한 종자연 연구계획서’를 요청한 바 있다. 인권위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단체에 연구용역을 주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국민일보 기자와의 지적에 대해 “심사보고 일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여기저기에서 (종자연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와 복잡하게 됐다. 담당자와 상의한 끝에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 국내 최대 규모 청년 선교대회 개최

# 7월 30일부터 ‘선교한국 2012 대회’

국내 최대 규모의 청년 대학생 선교대회가 열린다. 선교한국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승재)는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경기도 안산시 안산동산교회(김인중 목사)에서 ‘선교한국 2012 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행 3:15)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청년들의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년들이 선교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한다.

대회기간 동안 조지 머레이 미국

필립마리아제대 총장의 성경강해를 비롯해 143명의 현지 선교사들이 참여한 49개 영역별 강의를 펼쳐진다. 저녁 집회에는 유기성 선한목자교회 목사, 김도현 미국 콜로라도 크리스천대 교수, 이영길 인도 선교사 등이 나와 선교 전반에 대한 관심을 제시한다. 또 55개 국내외의 선교단체가 참여하는 박람회와 멘토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소그룹 활동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선교 참여의 동기를 부여한다.

이번 대회는 최근 한국 선교계에 청년층 선교사가 줄고 장년·시니어 선교사 파송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청년들의 선교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해 계획됐다. 이대형 상임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선교의 수원지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문 선교대회인 선교한국대회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며 “청년 선교사 동원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issionkorea.org/mk).

# 중국 공안, 한국선교사들 신상 털기

# 현지선교사 동태 물론 국내 신학교·교회까지 감찰

중국에서 활동 중인 시니어 선교사들이 전방위적으로 감찰대상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중국 선교 정보까지 훑아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 추방당한 한국인 선교사가 수십 명에 이른다는 게 중국선교기관의 분석이다.

중국에서 12년 넘게 사역한 A선교사. T시 공안에 소환 조사를 받던 중 화들짝 놀랐다. 공안이 제시한 문건에 그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

던 얘기를 나누었는지 소상히 기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시니어 선교사 B씨.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에게 연행된 뒤 해외에서 한국선교사들이 가진 모임에서 발표된 문건은 물론 각종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까지 입수돼 있는 걸 보고 모골이 송연해졌다. 요원은 협조하면 봐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B선교사가 알고 있는 모든 걸 털어 놓으라고 했다. 그의 요구는 ‘감박’ 수준이었지만 위압감을 주지 않

려고 애쓰는 듯했다.

중국선교사들에 따르면 국가안전부와 공안이 선교사 개인정보를 비롯해 한국교회의 선교현황 파악에 나선 지 오래다. 선교사가 ‘선생’이나 ‘사장’ 등으로 불리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 개인과 단체, 교회과일까지 만들어 ‘내부 청소(선교사 정리)’가 필요할 경우 선교사에 대한 추방과 협박, 협조 요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왕백석 선교사는 “중국 정부가 한국 중국선교 자료를 모니터링을 하고, 한국 대학(주로 신학교)과 교회, 선교대회에 정보원들을 침투시켜 중국선교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주요 한국 목회자들의 중국방

문 일행도 주시하고 매주 교회 주보까지 수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선 선교사는 “중국 내 한인교회 담임목사실에 도청장치를 해놓는 게 발견되기도 했다”며 “중국이 한국 교회의 선교현황을 매우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성일 선교사는 “그동안 한국 선교사의 보안 의식이 느슨해졌던 게 사실”이라며 “선교사들이 자칫 방심하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도 선교사들과 이메일 또는 전화를 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기독교북한선교회 청계천 집회

# 6.25상징 손수건 625장에 ‘눈물’ 모으기 행사

[미션라이프] “한국전쟁 62년, 남북이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독교북한선교회(대표 길자연)와 서울신학대학교 한국기독교통일연구소(소장 박영환)는 최근 서울 청계천 베를린광장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 탈북청년 8명, 남한청년 12명, 관계자들이 6.25를 상징하는 625장의 손수건에 ‘눈물’을 모으는 행사를 가진 것.

길자연 목사는 “우리 민족은 이념 논쟁, 군비경쟁으로 소모적이고 얼룩진 세월을 보냈고, 전쟁과 분단의 고착화는 우리 민족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이제 우리는 서로를 향해 눈물을 흘려야 할 때이며 이 눈물로 바라보면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행사취지를 설명했다.

행사에 참여한 남북한 청년들은 행인들에게 취지문을 나눠주고, 눈

물의 손수건에 싸인을 받았다. 한 50대 한 시민은 “현 모든 상황을 우리 민족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울어야 이 민족의 응어리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손수건에 눈물을 그린 윤석선 작가는 “눈물은 고통과 슬픔, 미움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 마음으로부터 화해가 일어난다”며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들의 문제를 바라보면 눈물을 흘리면, 고통의 북한 동포들, 탈북한 동포들, 남한의 동포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한 청년들은 이 625장의 눈

물 손수건을 모아 6월25일 독일 통일 기념식인 라이프치히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라이프치히 청년선언’을 하게 된다. 또 눈물의 손수건으로 퍼포먼스를 하며,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전쟁과 분단의 문제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울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기독교북한선교회 이수봉 사무총장은 “남한에 정착한 탈북동포가 2만5000여명으로 이제 통일을 연습해야 한다”며 “지난해 청년 참가자들이 한결같이 통일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해서 올해도 용기를 내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는 목사님의 목회에 신바람을 드립니다.

**목회가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설교가 고민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목회보다 더 신바람 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www.kcdc.net의 문을 여십시오. 그럼 목사님의 목회가 확 바뀝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Korea Church Data Center : 대표 김항안 목사)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는 성장의 기쁨을, 목회자들에게는 신선한 영적 부식물같은 영감이 넘치는 복음적인 설교와 목회 아이디어를 드리는 비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1986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kcdc 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 (예, 한 주간의 자료 내용)**

- 주일 낮 예배(행복한 예배를 위한 예배자료 (예배의 부름기도, 집회초대, 집회기도, 묵회기도, 헌금기도, 위약의 말씀, 축도)
- 주일 낮 대 예배(행복한 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5편 제공(강해, 본문, 주석, 상황, 기타)
- 주일 낮 대 예배 설교를 위한 예화 6~8편
- 주일 밤 예배(주 전야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 수요 예배(주 만남 예배)를 위한 설교자료(주제별 설교, 믿음, 사랑, 가정, 전도 등)
- 금요 예배(금요축복기도회)를 위한 설교자료
- 사목기도(영성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 주일 낮(행복한 예배) 예배를 위한 예배파워포인트 중첩자료
- 교회력에 따른 오늘의 기도와 자유 명상(Today's Prayer Hearing Q.) 자료

- 목회에 필요한 영적인 부식물같은 목회 아이디어(Program) 제공
- 매일 제공되는 4 주간의 자료 분량은 A4 사이즈 약 370매 정도의 분량임
- 한국교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모든 자료가 아니라 100% 집필위원(교수, 목회자)이 창작한 자료만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안내**

1년 회비 \$60을 사용하시는 교회 수표로 보내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카드로 결제를 하신 후 이메일(kcdc@chollian.net)이나, 전화(02-824-5004), 팩스 (02-824-4231, 4232)로 알려 주시면 사용 아이디와 함께 자료 활용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회원이 드리는 혜택**

- KKCDC설교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설교자료를 주제별, 본문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 KCDC예화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예화자료를 주제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 영상목회자료**  
멀티미디어를 통한 영상목회 활성화를 위한 영상자료 개발 및 보급
- 부식(도서출판 글로리아)를 통한 출판지원**  
목사님들의 설교집, 논문집, 예화집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출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출간까지 도와 드립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  
Korea Church Data Center

홈페이지 - [www.kcdc.net](http://www.kcdc.net)  
이메일 - [kcdc@chollian.net](mailto:kcdc@chollian.net)

전화 - (02) 824-5004  
팩스 - (02) 824-4231-4232

서울 동작구 상도 1동 685



### 파라과이

1. 감사한 일  
해마다 드리는 부활절 예배지만 올해는 더욱 의미있고 체계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 감사하다. 조국 대한민국의 한파 수교 50주년의 행사로 그동안 한국이 파라과이에 많은 원조를 하고 좋은 유대관계로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데도 힘이 된 일.

2. 사역모습을 돌아보다  
1) 새 생명이 태어나다  
한명의 세례교인은 정말 금 같은 성도이다. 세례를 받으려면 예수를 믿고 눈물로 회개하고 사도신경을 그대로 믿고 주일성수, 십일조, 로마서 1장-16장까지 쓰고 신구약 성경 한번 읽고 전도 한명 해야 한다. 참 어렵다. 그러므로 세례교인 한명이 얼마나 귀한가? 오늘 세례 받은 Barrio는 교회의 좋은 기둥감이 될 것이다  
2) 전교생 부활절 연합 예배드리다  
기독교 예초 유초중고등학교 2012년도 고난주간 부활절 예배를 전교생이 뜨겁게 드렸다. 전교생이 예수님의 탄생을 암송하고 찬양하며 중고등학생들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애 복음전



파, 갈보리 십자가의 고난, 나를 위한 죽음, 피 흘리심 부활의 연극을 하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도록 하였다

35명의 크리스천 교사들과 150여명(전주교 80여% 기독교15%)의 학생들과 뜻깊은 2012년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예배를 드렸다

3. 청소의 날 5, 6학년들의 특별 프로그램

우리 루게 시는 인구 328,000명이 사는데 위생시설이 좀 안좋다. 지난달에는 보건복지부장을 모시고 학생들에게 위생 특별 강의와 텀게와 가정학교와의 특별 위생관리법을 강의하였다 이번 달에는 길거리에서 좋은 고급차를 타고 가는 사람도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습관을 고치고 우리학교 학생들도 간식을 먹고는 많은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데 학생들이 '쓰레기 버리지 않기 운동'을 실천하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설탕 적게 먹기, 소금 적

게 먹기 운동은 계속할 것이다

4. 파라과이장로교신학대학으로 승격, 학교 일이 많이 바빠졌다  
새해에 문교부에서 내려온 지시는 교수연구실, 50명씩 같이 특강을 들을 수 있는 강의실, 초현대식 책상의자(컴퓨터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사이즈) 설비, 소방시설, 도서관 도서보충 등등 집이 무겁다. 교수들은 대학교수 수준에 맞는 각종 교육을 토요일마다 받고 있다

4개 교회에서 장학금을 20명(1인당 70달러)에게 지급하고 있다.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서 신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일을 막기 위한 이유도 되지만 학비에 신경쓰지 않고 더욱 공부를 열심히 공부에 전념하여 앞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을 키우도록 하는 방법의 일환이다. 남은 60여명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숙사를 지어서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  
올해는 반드시 2층(약 16만\$)을 신축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6월 이달에는 기공식을 해야 2학기 Nivación 과정 공부를 허락받게 된다.

5. 한인의 날 행사: 한파 수교 50주년 기념과 한인의 날 47주년을 맞아 한인들이 남미 교회체육관에서 모여 기념식과 아울러 한마당 놀이와 음식장터와 푸짐한 보물 선물로 하루의 즐거움을 맛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6. 영생교회 단기선교 파송예배 설교하다.  
필라델피아영생교회(담임 이용걸 목사)에서 해마다 보내는 단기선교팀 파송예배에 2010년에 이어 올해 또 설교를 하였다. 150여명의 여러 나라로 파송하는 여를 단기선교팀들의 아름다운 복음 전파와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심도있게 설교하였다.

기도제목

## 선교지 편



청소의 날 특별 프로그램



파라과이장로교신학대학 신축 조감도



한인의 날 행사 기념 사진



영생교회 단기선교 파송예배 기념 사진

1. 10차 목회대학원 훈련을 받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올해 한해도 사도행전적 교회로 잘 성장시키는 영력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2. 2012 신학대학 2층 공사비(6월 기공예배 예정 16만\$), 집기(4만\$) 마련에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3. 기독교 예술학교 5개 교회 협력 신학교 후임자가 속히 와서 일 하시도록.
4. 7월 시카고대회 강의와 8월 선교한국 멘토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라 남미 파라과이에서 여러분의 선교사 정금태 이복래 드림  
▲이메일: jeonggp@hotmail.com

### 브라질

사 58: 12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여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이사가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땅의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고 여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아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이곳 브라질 땅에 세워 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Seminario Biblico Palavra da Vida)신학교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경제적으로는 성장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상당히 황폐하며 무너져 있기에 말씀에 바로 선 건 강한 교회가 세워져 이 땅을 수보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인격이 겸비된 진실된 일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히브리어와 구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첫째 주에는 한 주간 석사과정에서 포로후기 선지서(학개, 스가라, 그리고 말라기서)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 약70년 후에 예루살

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여러 외부의 압력에 의해 건축이 중단된 것을 안타깝게 보신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라 선지를 세워 백성들을 격려하고 일깨워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공부하며 귀한 은혜를 받았습시다.

○또 SEDI라고 하는 비디오 신학교에서 올해에는 호세아서 강의를 녹음했습니다. 비디오 신학교는 먼 오지나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신학교에 공부하러 올수 없는 목회자들 혹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비디오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배워 훌륭한 주의 일꾼으로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에는 저희 소그룹(Group Kim)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결혼한 학생들로 구성된 그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섯 가정을 저와 아내가 담당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결혼을 했고 대부분 나이가 들었고 해서 성숙하고 소명도 뚜렷한 귀한 일꾼들입니다. 자녀를 가진 부부가 세 가정인데 정말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아주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큰 격정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공부하러 온 레안드로(Leandro)와 이에슬리(Tesley)도 있습니다. 이에슬리는 축구를 잘 하는데 신학교 공부를 마치고 이슬람 국가에 가서 축구교회를 세우고 그 일을 통해 선교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슬람 국가에 축구선수나 코치를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미 축구를 통해 여러 나라에 선교를 하고 있는 경우

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꾼은 없었지만 신학생들 한명 한명 저들이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왔다는 것만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헤드릴까 생각합니다.

또 올해 5월 13일부터 일주일간 아마존 파바팅 시에 있는 삼국경 신학교에 가서 특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눈을 초롱초롱 뜨고 열심히 듣는 인도도 신학생들을 보며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고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아마존 지역에 계속 복음이 빛이 비취나갈 것을 기대하면 마음이 설립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브라질 대학생 캠퍼스 운동인 CEU(Evangelical Community in University) 사역도 조금씩 모습을 띠어가고 있습니다. 루카스(Lucas)와 토마스(Thomas) 등 몇 명이 힘을 합쳐 인터넷에 블로그도 만들었고 필요한 전도 책자들도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운동의 목표는 브라질에 있는 각 대학 캠퍼스에 한 복음 단지 CEU를 심는 운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브라질이 경제적으로는 좋아졌다 하지만 정치 지도자들도 부정부패가 심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만약에 이 나라의 미래인 대학생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 받지 않는다면 30년, 40년 후에 브라질은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면 브라질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팀이 브라질의 한교회가 한 대학 캠퍼스를 책임지도록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 운동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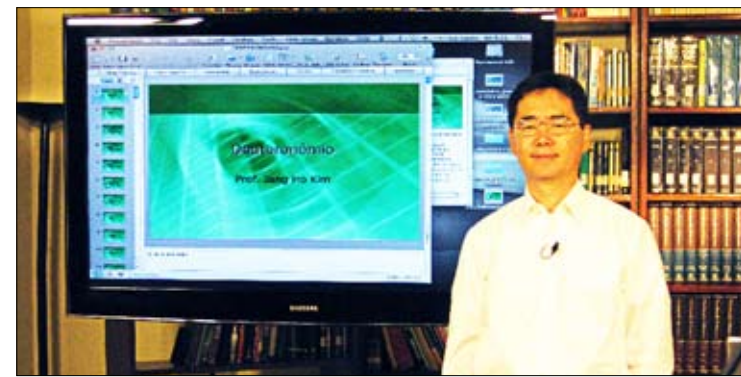
저희부부가 건강가운데 말씀과 성경충만을 통해 지혜와 믿음으로 사역에 입할 수 있도록  
신학교 사역을 통해 말씀과 인격이 겸비한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소그룹 사역을 통해 결혼한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CEU 사역을 통해 브라질 캠퍼스에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딸 데보라가 딸 카리스를 낳습니다. 벌써 저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늘 저희 부부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목사님과 당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온 교회위에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김장호 권애경 선교사 올림



##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배경 /주석/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질문이 상호 연결된 연관하여 새롭게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기독교인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

- 다니엘 전자성경
- 만나 전자성경

도서

신앙서적, 일반서적, 신간도서, 베스트 셀러, 가정/결혼, 교양/문화, 교회교육, 교회음악, 디지털바이블, 묵화와 신학, 성경/찬송가, 성서연구, 소프트웨어, 신앙생활, 신학일반, 실천신학, 어린이/청소년, 영적성장, 오디오북, 원서, 정기간행물, 전도/선교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멀티프로젝터 3000 ANSI LUMENS

- 철저한 어프터 서비스
- 좋은 화질의 제품, 저렴한 가격
- 소형에서 대형까지 무료 상담
- 멀티미디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판매 & 설치
- 음향/영상/조명장비 판매 및 설치
- Multimedia Projector & Screen 판매
- Consulting/Design/Set up

2300 Ansl Lumens \$699  
2600 Ansl Lumens \$799  
3000 Ansl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음악

새로나온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비디오/DVD, 악보, 어린이, 해외음반, 진송가, 연주 음반

교회용품

목서 가운, 성가대 가운, 크리스탈 강대상, 강대상, 교회음악 선물용품, 시상/행사, 예배용품, 카드, 기타

E7 미가엘 반주기

선명하고 넓은 LCD화면  
원용액 가운은 연주  
본체 고정용 스탠드  
USB 호스트 가능  
오카드 사용  
터치스크린 방식  
정시간 연속재생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연주기, 정경 DMB, 네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미중동부 지사 획득! 특별세일!

엘리엇구사  
에러드수정강대상  
EH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한 빛나는 강대상  
장미색 플라스틱의 독특한 디자인

크리스탈 성구사

최저가격 보장  
성구사용 보조 스피커 4개  
한국어인 어프터서비스  
East Design 크로노 목재제강대상  
대형에수교장로(참람)  
지방남부지역에 선정  
당첨자 이름은 즉시(2012년 6월 23일) 17:00에 당첨  
당첨자 명단은 2012년 6월 23일 17:00에 발표

역외에도 다양한 목회용품의 크리스탈 성구사가 있습니다.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몰  
www.gospelmail.com

NY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808, 809, 810  
Little Rock, AR 72201  
(213)447-4011

정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가운,  
달력, 다이어리



나의 희망, 기쁨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

# 해피 라이프 (7)

백악관에 입성한 진영이

친구가 많고 사교적이었던 진영이에 비해 일찍부터 영재학급에 들어간 진영이는 독서를 대단히 좋아하는 아이였다. 그런 진영이가 늘 대견했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되기도 했다. 항상 책만 끼고 있으니 혹여 나중에 공부할 때 체력이 딸리면 어쩌나 싶었던 탓이다. 체력도 심력만큼이나 중요하여 부모가 반드시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그저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모습이 좋아 그냥 두었던 것이 하버드 대학 조기입학을 놓치게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시카고 대학은 경제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명성이 높았다. 진영이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법과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는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점이 많았다. 진영이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포클 박사과 로버트 루커스 박사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시카고 대학은 교양수업의 수준이 높기로 유명했다. 우리 부부는 진영이가 시카고 대학에 입학한 후 공부에만 열중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진영이의 열정은 막을 수 없었다. 남편은 진영이가 봉사활동을 좋아하고 학문에 전념하기를 바랐지만 그동안 길러온 봉사 정신과 리더십 때문인지 진영이는 오히려 더 강하게 자신의 신념대로 과외활동을 해 나갔다.

형보다 운동 신경이 덜 발달한 편인 진영이에게 나는 농구나 야구 같은 팀 스포츠 대신 줄넘기나 달리기 등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경쟁할 수 있는 운동을 시켰다. 그것이 도움이 되었는지 진영이는 고등학교 때에는 트랙과 필드 경기에 참가했고 대학생 때에는 선수들에게도 지옥처럼 힘들다는 시카고의 철인3종경기를 완주했으며 지금도 종종 마라톤대회에 참가한다.

진영이가 자신의 신념대로 과외 활동을 하며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스포츠를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 이리라. 대학 1-2학년 때 진영이는 노스웨스트 인디애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사인 헤먼드 타임스에 처음으로 취재해 열심히 일했다. 또한 시카고 대학에 처음으로 '일과와 오메가'라는 봉사활동 클럽을 창립, 대학 내에 지역사회 봉사센터를 창설하고 초대 소장으로 봉사했다. 그때부터 진영이는 스스로 용돈을 벌어 썼고 책값은 물론 다른 비용까지 알아서 충당했다. 어릴 때부터 행 못지않은 리더십을 발휘했던 진영이는 시카고 대학에서 학생대표이사 선거에 출마해 당당하게 당선되기도 했다.

진영이가 시카고 대학에서 이룬 봉사활동과 리더십의 명성은 점차 시카고 대학을 넘어섰다. 전미에 방송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가 하면, 진영이의 활동을 다룬 신문 기사를 본 시카고 대학의 소년사인 총장이 직접 '참으로 자랑스러운 아들을 두셨습니까'라는 서신을 보내오기도 했다. 진영이는 시카고 대학에서 주는 봉사상과 지도자상을 모두 휩쓸었고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매년 30명을 뽑는 지도자상도 수상했다. 대학 졸업 후 3년제 법학박사 프로그램에 입학하려면 LSAT 즉 법대 입학시험을 치러야 한다. 180점 만점인 시험으로 진영이가 본 해의 평균은 150점이었고 예일대학 법대와 시카고 대학 법대의 입학생 평균이 169점으로 가장 높았다. 진영이는 172점으로 100명중 1등이라는 최고점을 받았다. 대학 성적이 문제 되긴 했지만 미국 10대 명문 법대 여러 곳에서 한 번에 합격했기에 그중 한 곳을 선택하기만 하면 됐다.

시카고 대학에서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진영이는 같은 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는 리즈를 만났다. 조금 일찍 만났더라면 좀 더 오래 알콩달콩 캠퍼스 커플로 연애를 즐겼을 것을, 졸업 후 진영이는 듀크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리즈는 하버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해 3년이란 긴 기간 동안 원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다. 이것도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곤 하는데 이 둘은 오히려 더욱 애뜻해져만 갔고 그렇게 사랑을 키워 마침내 2002년 4월 24일 리즈의 생일날 약혼식을, 그해 6월 15일 진영이의 생일날 결혼식을 올렸다. 5학년 때 가상의 자서전에 쓴 일을 진영이는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 간 것이다. 대학원 시절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진영이는 졸업 후 리즈와 함께 워싱턴에 자리를 잡았다. 2001년 변호사가 된 후에는 일리노이 상원의원인 리처드 더번 상원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다, 그가 민주당 부대표가 되면서 진영이는 민주당 지도부 본회의장 법률 고문과 수석보좌관으로 7여년간 일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또한 2005년부터는 미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에 선정되어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백악관 임법특별보좌관으로 스카우트되었다. 이어 2011년 8월 17일자로 대통령 선임법률고문이라는 최고의 요직으로 발탁됐다. 백악관 법률고문실은 우리나라의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비슷한 곳으로 대통령에게 법률자문을 하고 사법부 인선 등을 보좌하는 조직인데 청와대의 법무비서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진영이의 아내 리즈는 가정폭력범을 전문 분야로 하여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수학한 뒤 지금은 이 분야의 권위자로 학생과 법조인들을 위한 서적을 집필하며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진영이와 리즈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보이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으니 이 부부를 지켜보는 내 마음도 뿌듯하기 그지 없다. (다음호에 계속)

석은옥 여사의 둘째 아들 강진영씨

석은옥 (고 강영우 박사 부인)

강진영

# 선교지 편지



## 탄자니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말1:2a) 살롬!

우리의 능력 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안부 편지를 드립니다. 이곳 도도마는 올해 비가 일찍 많이 와서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농사에 대한 욕심을 내고 옥수수들을 심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비는 도중에 멈추고 뜨거운 열기 속에 대부분의 옥수수들이 매달라 버렸습니다. 대체적으로 농사가 잘되는 지역마저도 옥수수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올해 농사가 실패를 해 기쁨이나 어려운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두가 어려워하는 시기에 의료와 어린이 사역팀들이 들어와 그들의 아픈 몸과 마음들을 치료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사역들을 통해서 부으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선교센터는 많은 변모를 가져왔습니다. 2년전 심겨진 나무와 울타리 나무들이 한자도 되지 않을 만큼 작은 나무들이었으나 이제는 담장을 다 막고 큰 나무는 2.5미터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비가 제대로 오지 않는 지역에서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다듬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2년이라는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동역자들을 통하여 사역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먼저는 지어진 교실 6칸의 변모입니다. 허름하고 불품없던 교실들이 새로이 단장을 하고 학생들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일 때 마다 화장실과 세면장이 없어 힘들어 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어려움들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어 하루에도 몇 차례나 물을 길러 먼 곳까지 트럭을 운전하고 갔었지만 이제는 물 저장고도 여유가 있어 선교센터가 사용해야 할 물, 일주일 정도의 양은 충분하게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다 목회자들이 언제나 쉬 수 있도록 조그마한 쉼터도 마련하였습니다.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물건을 쌓아 놓을 만한 장소가 없었는데 큼직한 창고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형제들이 식사를 만들고 먹을 장소가 없어 늘 안타까워했는데 그러한 장소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교회와 동역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주에 있는 베델한인교회와 은혜한인교회와 단기선교팀으로 이곳 아프리카 탄자니아 도도마까지 와주셨습니다. 의료선교와 어린이 사역을 중심으로 여러 마을들을 방문하면서 치료사역과 어린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음바라와라 라는 마을에서는 근처 12개 이상의 마을 사람들이 물려와 저녁 마치고는 시간까지 치료를 다 마치지 못해 마을 사람들이 다음 날 마을까지 찾아와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치료가 이루어졌던 교회와 마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들로 사역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신 분들의 섬기시는 모습에 현지목회자들이 감동을 받아 말이 잘 통하지 않지만 팀들의 사역을 함께 나누며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오신 분들 중에는 10년 전에 이곳 도도마에 오셔서 의료사역을 하시고 다시 오신 팀원들이 계셔서 한국 분들의 이름이 생소하지만 기억하고 있는 현지 목회자들과의 만남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복음사역, 사역이 많아보면 어떤 사역이 주 사역인지 가늠을 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곳으로 돌아온 이후 직접적으로 복음사역에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매일 모이는 기도회와 세미나, 30일 마다 이루어지는 일주일의 전도집회 사역,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사역들로 분주하지만 오히려 예수 그 이름 안에서 능력을 체험하고 힘을 얻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강력이었고, 치유함이 있으며, 부요하며, 새 생명의 삶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강력하게 가르치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안식일, 저희들의 사역이 5월에 들어서면 2년이 지나 공식적인 안식일 6개월간의 쉼을 갖도록 되어 있지만, 탄자니아 도도마의 사역이 이제 시작을 준비하며 신학교, 유치원 등을 다시 열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어 6개월 동안 미국에 머물지 못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의 사역들이 그렇게 힘든 사역은 아니지만 2년, 24개월 동안 10개월 이상을 병으로(특히 말라리아, 장티푸스) 앓아하면서 사역을 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지난 1989년 아프리카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막연히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로, 아프리카로 돌아와 다시 사역을 전개하며 이때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녹아 우리들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이 저희들의 참 기쁨이 되며, 여러 동역자님들께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며 확신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곳 탄자니아 도도마의 복음사역을 위해서 도와주신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기도 제목

1. 탄자니아 도도마 목회자들의 삶을 위해서, 5달러의 차비가 없어서 선교센터의 모임을 참석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시오.
  2. 하나님께서 많은 비전들을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사역위에 하나님의 능력,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3. 주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 임하며 사단의 지체가 무너지도록.
  4.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 늘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속히 이루시게.
  5. 복음사역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외쳐질 때 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6. 3개월 정도 미주에 머무는 동안 모든 일정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7. 이곳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신학교와 유치원을 열기 위한 책상, 아이들 의자, 칠판 등 필요한 물품들이 채워지도록.
  8. 잠시나마 비워두는 선교센터가 도둑과 강도로부터의 안전과 두 고은 선교센터를 위해서 사역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9. 몇몇 교회가 건물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 한 가운데 있는 마천교회가 흠으로 지어져 있어 안전의 문제 때문에 정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후 공식적으로 개축에 대한 허락을 받고 공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주시시오.
  10. 베올라교회와 유치원센터, 음바라와라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11. 홍보로 마쿠루 교회가 지붕과 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부공사와 남은 일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12.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경외하는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 살롬!  
주 안에서 황광인, 영숙 선교사 드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계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82)232-7767, Fax: (82)232-822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27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계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지역예배: 오후 7:30 Tel: (82)312-8794-6 군포시 삼정동 870-10호	<b>금관교회</b>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312-8794-6 군포시 삼정동 870-10호	<b>김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동성 주일1부예배: 오전 7:4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312-8794-6 김포시 삼정동 870-10호	<b>광주신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Tel: (82)322-2222-4411, Fax: (82)322-8888-8888 300-170 영고광주시 서구 봉곡동 830-115호	<b>동경중앙교회</b>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82)332-4444-4444, Fax: (82)332-8888-8888 2-10-8 Guro Station, Guro, Korea, Japan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영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9:30 주일7부예배: 오후 9:30 Tel: (82)332-4444-4444, Fax: (82)332-8888-888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1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영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4:00 지역예배: 오후 8:00(매일) Tel: 39-09-877-3282, 39-09-339-1778 VIA DEI GIULIANI 32-38 00175 ROMA, ITALY	<b>명성교회</b>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4:30 주일6부예배: 오후 7:30 Tel: (82)312-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10호	<b>삼보교회</b> 담임목사: 박장윤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312-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10호	<b>새연교회</b> 담임목사: 소강희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312-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10호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석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Tel: (82)312-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10호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명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82)312-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10호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9:30 Tel: (82)312-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10호	
<b>수영로교회</b>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Tel: (82)312-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10호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312-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10호	<b>승동교회</b> 담임목사: 박장윤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312-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10호	<b>시온소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312-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10호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82)312-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10호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경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312-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10호	<b>안암제일교회</b> 담임목사: 조윤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9:30 Tel: (82)312-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10호	
<b>안곡교회</b> 담임목사: 서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10:30(매일) 주일6부예배: 오후 12:3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12-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10호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자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Tel: (82)312-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10호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312-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10호	<b>주안교회</b> 담임목사: 나권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312-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10호	<b>장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312-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10호	<b>장주주의교회</b> 담임목사: 서재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9:30 Tel: (82)312-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10호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312-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10호	



#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12)



## 2 성격-이중문화적/이중언어적 교육 (Bi-cultural/Bi-lingual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우리 한인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지난 두 번째 성격인 "이중문화적/이중언어적 교육"(Bi-cultural/Bi-lingual Christian Education)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가치들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사역의 지향할 바라는 것을 말씀드렸으며, 그 첫 번째 가치는 그것이 우리 한인들 특히 우리 한인 자녀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언어적 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갈등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있고, 그 두 번째 가치는 그것이 이후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그들이 세계 교회와 사회를 위해 크게 일하는 밑거름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있으며, 그 세 번째 가치는 그것이 우리 한인 교회 안에 있는 세대 간의 격차로 인한 몰이해, 갈등 상황 등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어 줄 수 있다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중문화적/이중언어적 교육"(Bi-cultural/Bi-lingual Christian Education)이 가지는 마지막 가치는 그것이 "다문화 기독교 교육"(Multi-cultural Christian Education)의 가치를 실현하는 출발 및 근간을 세울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다문화 기독교 교육이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가치를 교육에 현실화시킨 다문화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의 가치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신앙 공동체에서 실천하는 교

들로 키우려는 의도가 주를 이루었으며(지금도 그러한 경향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서야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의 가치라는 것이 그 평등성과 상호성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자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주의/다문화 교육의 가치를 기독교적 신앙에 입각하여 그 신앙 공동체의 교육적 가치로 삼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다문화 기독교 교육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발견되면서 이들에 대한 올바른 사역을 고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인종과 문화가 평등하게 그 나름의 가치를 갖는 것에서 출발하여 이는 하나님의 창조와 뜻과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모두가 평등하며 아름답게 연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 따라서 서로 상호간에 인정하고 서로에게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 등을 주된 가치로 삼고 사역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평등성과 상호성이 실현되어야 함에도 현실상에서는 불평등과 차별로 점철 되는 상황에 대해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 또한 미국 사회와 교회 안에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나타내는 공동체 중에 하나이며, 기독교적으로 바르게 이 미국이라는 땅에서 살아나

### 다문화 기독교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출발 및 근간 세워 각 문화의 가치와 그에 기반한 행동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

육입니다. 다문화주의는 현대 미국 사회에서는 이미 정설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미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며 상호작용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이며, 이제는 각각의 문화들이 상하의 가치가 아닌 각자 나름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미 정설로 회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사회는 이러한 다문화 가치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백인 중심의 가치를 모든 문화의 기준으로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소위 백인영어를 그 언어적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 같은 미국 문화와 미국 언어를 공유했음에도 흑인들의 그것들은 질적으로 보다 하위에 두는 경우가 팽배했었지요. 다른 유색인종들의 문화들과 언어들은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물론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문화와 언어는 미화되고 인정되는 분위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흑인들과 유색인종들의 숫자와 사회적 영향력이 급증하면서 미국 사회는 모든 문화들의 지위와 그 가치의 평등성을 정착화 시켜오고 있습니다.

문화 인종적 다양성이 학교 교육의 환경에도 급격하게 대두되면서 교육의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다문화 주의의 가치를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교실 안에 있는 다양한 문화들과 인종들에서 온 학생들을 인지하고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타 인종의 학생들이 백인 중심 중심의 미국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건전한 미국 시민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다문화 기독교 교육의 가치들을 그 사역에 일구어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인 위주의 미국문화에 무비판적으로 동화되려는 것을 지양하고 한인으로서의 그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미국의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지향하면서 말입니다.

한국 문화는 한국 문화대로 미국 문화는 미국 문화대로 또한 다른 모든 문화들은 또 그 나름대로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것들이며 가치를 가진다는 것, 그래서 어느 하나가 우월하고 다른 것은 열등하다는 그런 사상이나 그에 기반한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교회에서 바로 이러한 다문화 기독교 교육의 가치를 받아 안고 실천하는데 그 출발 및 근간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이중문화적/이중 언어적 교육"(Bi-cultural/Bi-lingual Christian Education)입니다. 이 교육은 이미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평화롭고 평등하게 공존하며 서로를 세우는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치로 삼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 모두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는 원론적 근간을 제공하는 이러한 교육을 그 가치에 합당하게 현실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인종과 문화도 끌어안는 사역으로 점차 그 지경을 넓혀 갈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한인 교회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 이메일: leesmindcare@gmail.com

##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 월 함께 지는 십자가 (마27:32-44)

32절을 보면 구레내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심한 매질과 수모를 당했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이 기진맥진해서 십자가를 지고 끌고다닐까 단번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도 힘들어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가다가 실족해 넘어지기도 하고 지쳐서 엘리야처럼 로템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괴로움을 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행하는데 완전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수행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끌고다닐 것을 힘차게 뛰어올라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가 직분이나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한 점이 발견돼도 비판하지 맙시다. 서로 짐을 나눠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의 사랑을 나누시다.

### 화 단절과 화평 (마27:45-56)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하시기 직전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절규였습니다. 주님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혹독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하

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됐던 죄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지라 둘로 하나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엡2:14), 죄로 막혔던 인간과 하나님간의 장벽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이로써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마27:57-66)

본문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빌라도에게 파수꾼을 세워 예수의 무덤을 지키도록 해달라고 청원해 허락을 받아내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생전에 자신이 사할 만해 부활하리라고 예고한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간 후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헛소문을 날까봐 무덤을 굳게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혹여라도 그의 예고대로 다시 살아나신다면 다시 처단할 계획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산

헤드린의 악한 계교를 도리어 그리스도 부활의 사실성을 증거 해주는 방편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들의 계략도 진리의 증거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누가 여러분을 모함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사역을 전으로, 화를 복으로 바꿔 여러분에게 우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어떤 악한 일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목 한 발 앞선 신앙인 (마28:1-10)

1절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내용입니다.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새벽이 되자마자 무덤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의 신앙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서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선 신앙인이 하나님의 은혜도 한 발 앞서 체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

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첫 번째로 목격하고 첫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신앙에서도 구태의연한 자세를 벗어나고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롬12:11).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딤후2:6).

### 금 표적 중심의 신앙 (마28:11-15)

본문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의 보고를 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주님의 부활 사실을 알고서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나타나 돌을 굴러내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부활한 사실을 왜곡 은폐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주님생전에 메시야 표적을 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표적을 무덤 경비병들을 통해 전해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메시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중심의 신앙에 따르는 위험성입니다. 신비로운 표적과 기적을 봐야 예수님을 믿겠다는 자들의 무지함이 이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표적만으로는 그 영혼이 주님을 믿거나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말씀의 은혜가 없는 절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표적 중심의 신앙자세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 토 처음 신앙 회복 (마28:16-20)

16절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주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한 곳이고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제자로서의 영광을 얻고 기쁨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나선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 꿈과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슬픔과 절망과 패배감이 젖어있었습니다. 죽은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 그러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처음 만났던 갈릴리에서 만나

지고 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 승리의 확신과 사명의 다짐을 확인시켜주시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는 이유는 주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의 체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럼프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마침내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 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Oct 22-Oct 26 (10월 22-10월26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Oct 29-Nov 2 (10월 29-11월2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ter, Professor

### 모집과정

- 석사과정(M.A.)
- 석박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D.Min., D.Miss.)

## 호주 현지강의 안내

Aug 20-Aug 24 (8월 20 - 8월24일)

DI 808 Discerning God's Will(하나님의 뜻 발견하기)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Stephen Park

Aug 27-Aug 31 (8월 27 - 8월31일)

PM 853 Dynamics of Spiritual Growth(영적 성장의 원동력)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John Teevan

## 21세기 여성 지도력 개발 세미나

강사: Dr. Rachel Park(김정은 박사)  
일시: 8월 28일-29일  
장소: 시드니 한우리 선교센터

## 본교 소개 및 특전

1. 74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추어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공간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신교학 석사학위를 인터넷으로

-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전과목 온라인 강좌
- 영어/한국어 강의
  - 이수학점: 36학점 (12과목)
  - 대상: 목회자, 여교역자, 사모, 장로, 권사, 집사
  - 특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신교학 박사과정 지원시 특혜

## 온라인 강의(8주간)

- Doctoral Courses (박사과정)
-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ter / Dr. Stephen Park
  -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m Julien & Tom Stalter / Dr. Stephen Park
- MA Courses (석사과정)
- MIN Bible Study Methods(성경공부 방법론)  
Dr. Mark Soto / Dr. Stephen Park
  - MI 511 Understanding World Religions(세계종교의 이해)  
Dr. Thomas Stalter / Dr. Stephen Park

#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674-372-6100 (Ext. 6336), 6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grace.edu, gskomensstudies@gmail.com



2012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제 33회 **할렐루야**



# 대뉴욕 복음화 대회

Hallelujah Greater New York Evangelization Conference

**“변하여 새사람이 되리라!” (삼상 10:6)**

**일자**

주후 2012년 7월 6(금), 7(토), 8(주일)

**시간**

금, 토 저녁 8시, 주일 오후 6시

**장소**

**퀸즈한인교회 (이규섭 목사 사무)**  
**The Korean Church of Queens**  
89-00 23Ave., East Elmhurst, NY 11369  
Tel. 718-672-1150



**강사**

**이태희 목사 (서울, 성복교회 당회장)**

Rev. Tae Hee Lee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비전코리아21중앙협의회 총재  
북한 구원운동 공동회장  
민주평통 자문위원  
교회와 경찰중앙협의회 증경회장  
수동기도원 원장

**어린이 복음화대회(Children)**



■ 강사 : 변현수 전도사  
Pastor Hyun Soo Byun  
(뉴욕초대교회 전도사)  
■ 일시: 7월 6일 금 (8:00PM)  
7일 토 (8:00PM)  
8일 주일(6:00PM)  
■ 장소: 퀸즈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Queens

**청소년 복음화대회(Youth)**



■ Speaker: Rev. James Puleo  
(New Life Fellowship Church)  
■ 일시: 7월 26일 목 (7:00PM)  
27일 금 (7:00PM)  
28일 토 (5:00PM)  
■ 장소: 퀸즈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Queens

**목회자 세미나**



■ 강사: 이태희 목사  
Rev. Tae Hee Lee  
(서울, 성복교회 당회장)  
■ 일시: 7월 9일 월(10:30AM)  
■ 장소: 뉴욕순복음연합교회  
(양승호 목사 사무)



##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35-34 Union Street, #3Fl., Flushing, NY 11354  
Tel. (718) 358-0074 / Fax. (718) 321-0105  
E-mail: nyckcg@gmail.com

**Website: www.nyckcg.org**

**고문**

김해종 목사, 장영춘 목사, 박희소 목사, 이문구 목사, 김용걸 신부, 김상모 목사, 김정국 목사, 양희철 목사, 장석진 목사, 방지각 목사, 김남수 목사, 한재홍 목사, 한세원 목사, 박수복 목사, 최웅렬 목사, 안창희 목사, 송병기 목사, 황경일 목사, 김영식 목사, 허 걸 목사, 김종덕 목사, 이병홍 목사, 정수명 목사, 황동익 목사, 최창섭 목사, 신현택 목사, 김원기 목사(회기순)

- 대 회 장 : 양승호 목사
- 부 대 회 장 : 김종훈 목사 / 황규복 장로
- 총 무 : 이희선 목사 (917-432-4370)
- 서 기 : 현영갑 목사 (347-538-1785)
- 준비위원장 : 이광희 목사 (917-519-0459)